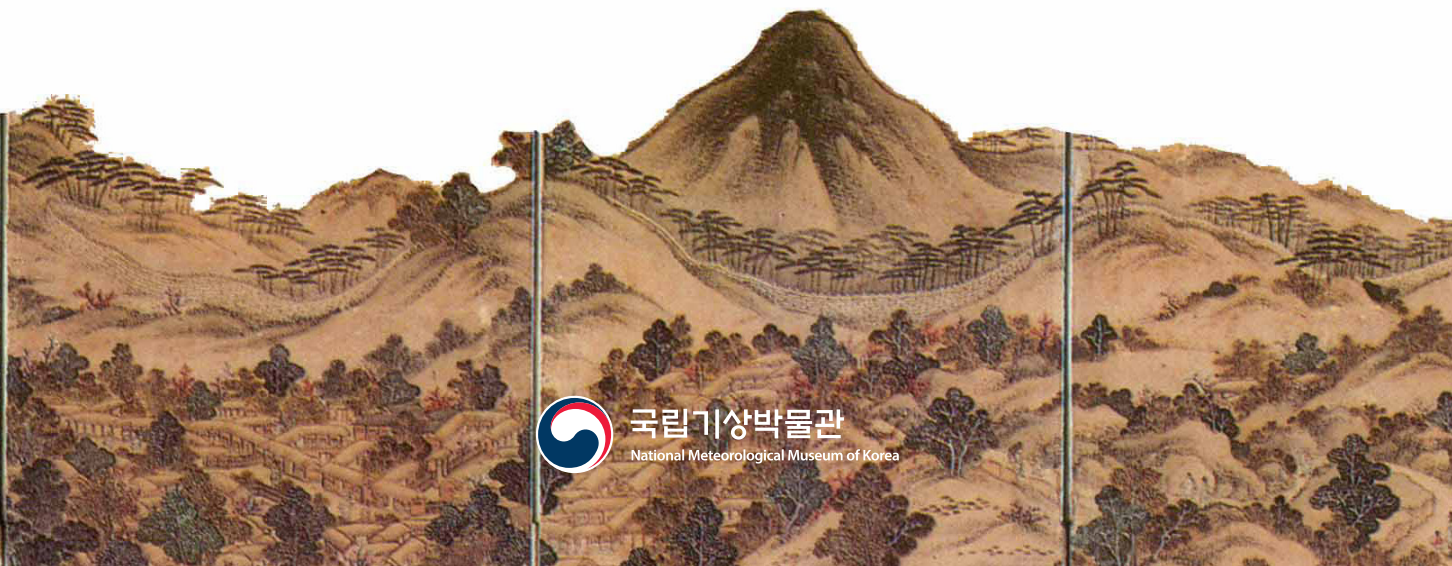


各司騰錄
각사등록 경기도편 2
역사기후 자료집

廣營啓錄
華營啓錄
開城府留營狀啓騰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 2

各司臚錄 5책, 廣營啓錄	1891년(고종 28)~1893년(고종 30)
各司臚錄 5책, 華營啓錄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85년(고종 22)
公文編案 82책,	1895년(고종30)

各司騰錄
각사등록 경기도편 2
역사기후 자료집

廣營啓錄
華營啓錄
開城府留營狀啓騰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542-0565	1891년, 고종 28년	광영계록 6책	각사등록 5책	8
0566-0595	1892년, 고종 29년	광영계록 6책	각사등록 5책	32
0596	1893년, 고종 30년	광영계록 6책	각사등록 5책	62
0597	1898년, 고종 34년	공문편안 82책		63
0598-0604	1895년, 고종 32년	공문편안 82책		64
0605-0608	1845년, 헌종 11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71
0609-0614	1846년, 헌종 12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75
0615-0616	1847년, 헌종 13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82
0617-0618	1848년, 헌종 14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84
0619-0641	1850년, 철종 1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86
0642-0666	1851년, 철종 2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110
0667-0705	1852년, 철종 3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136
0706-0748	1853년, 철종 4년	화영계록 3책	각사등록 5책	175
0749-0782	1867년, 고종 4년	화영계록 2책	각사등록 5책	218
0783-0819	1868년, 고종 5년	화영계록 2책	각사등록 5책	252
0820-0851	1875년, 고종 12년	화영계록 1책	각사등록 5책	289
0852-0906	1876년, 고종 13년	화영계록 1책	각사등록 5책	321
0907-0927	1861년, 철종 12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사등록 4책	376
0928-0959	1862년, 철종 13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1책	각사등록 4책	397
0960-0991	1873년, 고종 10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사등록 4책	429
0992-1021	1874년, 고종 11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사등록 4책	461
1022-1049	1875년, 고종 12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2책	각사등록 4책	491
1050-1072	1884년, 고종 21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4책	각사등록 4책	519
1073-1107	1885년, 고종 22년	개성부류영장계등록 4책	각사등록 4책	542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 2

0542. 1891년(고종 28) 3월 16일(양력 4월 24일)

廣營啓錄 6책(40b~40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3a~193a)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五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子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자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3. 1891년(고종 28) 3월 26일(양력 5월 4일)

廣營啓錄 6책(41a~41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3b~193b)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四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4. 1891년(고종 28) 4월 3일(양력 5월 10일)

廣營啓錄 6책(41a~4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3b~193c)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耨, 漸就茁長, 秋耨, 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鍤役, 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5. 1891년(고종 28) 4월 23일(양력 5월 30일)

廣營啓錄 6책(42a~42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4b~194b)

卽接本州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6. 1891년(고종 28) 4월 27일(양력 6월 3일)

廣營啓錄 6책(43a~4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4c~194c)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六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7. 1891년(고종 28) 5월 3일(양력 6월 9일)

廣營啓錄 6책(43b~43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4c~194d)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8. 1891년(고종 28) 5월 13일(양력 6월 19일)

廣營啓錄 6책(43b~43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4d~194d)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方張刈取, 春麴,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始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畚,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49. 1891년(고종 28) 5월 19일(양력 6월 25일)

廣營啓錄 6책(44a~4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5b~195b)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사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0. 1891년(고종 28) 5월 23일(양력 6월 29일)

廣營啓錄 6책(44b~44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5b~195b)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粃, 幾盡刈取, 春粃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1. 1891년(고종 28) 6월 3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6책(44b~4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5c~195c)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一日申時量始雨, 一直滂沱, 至當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짹짹 쏟아지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2. 1891년(고종 28) 6월 4일(양력 7월 9일)

廣營啓錄 6책(45a~4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5c~195d)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3. 1891년(고종 28) 6월 8일(양력 7월 13일)

廣營啓錄 6책(45a~4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5d~195d)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4. 1891년(고종 28) 6월 14일(양력 7월 19일)

廣營啓錄 6책(45b~45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6a~196b)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一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辰時量〈乃止〉, 所得爲四犁二鋤許. 農形段,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 中稻黍粟, 再除草已畢, 晚稻黍粟, 再除草, 根耕豆太, 次第立苗, 移秧之畝, 方張除草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三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4려 2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차례로 싹이 트고, 모내기한 논은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5. 1891년(고종 28) 6월 17일(양력 7월 22일)

廣營啓錄 6책(45b~4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6b~196b)

本府雨澤, 今月十三日辰時至, 測雨器水深四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十六日辰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3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6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6. 1891년(고종 28) 6월 20일(양력 7월 25일)

廣營啓錄 6책(46a~4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6b~196c)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九日辰時量乃止. 所得不可以犁鋤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三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러나 서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7. 1891년(고종 28) 6월 24일(양력 7월 29일)

廣營啓錄 6책(46a~46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6c~196c)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之畝,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8. 1891년(고종 28) 7월 14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6책(47b~4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7a~197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팥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 같이한 콩·팥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59. 1891년(고종 28) 7월 19일(양력 8월 23일)

廣營啓錄 6책(47a~47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7b~197b)

本府雨澤, 去月十九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 而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淫灑或雲陰是如可, 至今月十八日午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尺四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부 우택은 지난달 19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인 것과 이후의 경위는 말씀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이번 달 18일 오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자 4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0. 1891년(고종 28) 7월 24일(양력 8월 28일)

廣營啓錄 6책(47b~4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7c~197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 舉皆結穎, 早豆太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 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1. 1891년(고종 28) 8월 5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6책(47b~4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7c~197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則去月二十九日卯時量始雨，或霪或灑，至今月初三日辰時量乃止。其間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二分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3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2. 1891년(고종 28) 8월 5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6책(48a~4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197d~197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間或開花, 早豆太今始向熟, 中稻黍粟, 已盡發穗, 晚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팍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3. 1891년(고종 28) 8월 15일(양력 9월 17일)

廣營啓錄 6책(48a~4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7d~197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太豆,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盡發穗, 根耕豆太, 幾皆成實, 木麥, 間或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갈이란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고, 메밀은 간혹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4. 1891년(고종 28) 8월 21일(양력 9월 23일)

廣營啓錄 6책(48b~48b)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6책(198a~198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七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5. 1891년(고종 28) 9월 23일(양력 10월 25일)

廣營啓錄 6책(49a~49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198a~198b)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二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6. 1892년(고종 29) 3월 3일(양력 3월 30일)

廣營啓錄 6책(57b~57b)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202d~202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方張耕播, 秋種兩麥,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7. 1892년(고종 29) 3월 8일(양력 4월 4일)

廣營啓錄 6책(57b~5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2d~202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五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六日戌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8. 1892년(고종 29) 3월 13일(양력 4월 9일)

廣營啓錄 6책(59a~59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6책(203c~203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耕播, 秋種兩麥, 舉皆向青, 水根洞畚, 今方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대부분 푸르러지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은 지금 막 가래질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69. 1892년(고종 29) 3월 15일(양력 4월 21일)

廣營啓錄 6책(59b~5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3d~203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四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五日卯時量乃止. 其間所得爲二鋤許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0. 1892년(고종 29) 3월 23일(양력 4월 19일)

廣營啓錄 6책(59a~5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3c~203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粳舉皆出土, 秋種兩麥, 日漸青潤, 畓庫方張鍤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날로 점점 푸르게 윤기가 나고, 논은 한창 가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1. 1892년(고종 29) 3월 29일(양력 4월 25일)

廣營啓錄 6책(61b~6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4d~205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九[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9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2. 1892년(고종 29) 4월 3일(양력 4월 29일)

廣營啓錄 6책(63a~63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5d~205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粳舉皆向靑, 秋種兩麥, 日漸茁長, 早稻黍粟, 方張付種, 畚庫鋪役, 幾盡過半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대부분 푸르러지고, 가을에 씨앗을 뿌린 보리와 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절반 이상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3. 1892년(고종 29) 4월 13일(양력 5월 9일)

廣營啓錄 6책(64a~64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6c~206c)

啓

卽接本州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漸就茁長, 秋甦, 方張胚胎, 早稻黍粟舉皆付種, 畚庫鋤役, 幾盡垂畢, 早豆·太·木綿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점점 싹이 자라나고,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가래질을 거의 다 마쳤고,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4. 1892년(고종 29) 5월 4일(양력 5월 29일)

廣營啓錄 6책(65a~65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6d~206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已盡發穗, 春麴間或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舉皆出土, 中稻黍粟方張耕播, 晚稻黍粟, 始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맺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의 경우 땅을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5. 1892년(고종 29) 5월 8일(양력 6월 2일)

廣營啓錄 6책(65a~65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206d~207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六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辰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6. 1892년(고종 29) 5월 14일(양력 6월 8일)

廣營啓錄 6책(65a~6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7a~207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麴, 舉皆向熟, 春麴已盡發穗,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今始初除草, 中稻黍粟次第立苗, 晚稻黍粟, 幾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대부분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7. 1892년(고종 29) 5월 24일(양력 6월 18일)

廣營啓錄 6책(65b~6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7a~207b)

啓

即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二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酉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 農形段, 秋耨, 方張刈取, 春耨, 今始向熟,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初除草已畢, 中稻黍粟, 今方初除草, 晚稻黍粟, 間或立苗, 水根洞沓, 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싹이 트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네 논에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8. 1892년(고종 29) 6월 1일(양력 6월 24일)

廣營啓錄 6책(65b~6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7b~207b)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秋麯, 幾盡刈取, 春麯間或刈取,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 中稻黍粟, 初除草已畢, 晚稻黍粟, 間或初除草, 根耕豆太, 方張耕播, 先移之秧, 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79. 1892년(고종 29) 6월 11일(양력 7월 4일)

廣營啓錄 6책(66a~66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207b~207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九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一日辰時量〈乃止〉, 所得爲二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三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0. 1892년(고종 29) 6월 13일(양력 7월 6일)

廣營啓錄 6책(66a~66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7c~207c)

啓

本府雨澤, 今月十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二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或灑, 至十二日申時量乃止. 其間所得, 又爲二犁二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1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2려 2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1. 1892년(고종 29) 6월 15일(양력 7월 8일)

廣營啓錄 6책(66b~66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7c~207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春甦, 已盡收穫, 早稻黍粟及早豆·太·木綿, 再除草已畢, 中稻黍粟, 再除草, 晚稻黍粟, 初除草垂畢, 根耕豆太, 間或出土, 先移之秧, 日漸茁長, 後移之秧次第青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기장·올조 및 올콩·올팍·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팍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먼저 모내기한 것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푸르게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2. 1892년(고종 29) 윤6월 5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6책(67a~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a~208b)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四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五日寅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 農形段, 早稻黍粟及豆太木綿, 三除草已畢, 中稻黍粟, 三除草, 晚稻黍粟及移秧畚, 舉皆再除草, 根耕豆太, 日漸茁長, 木麥方張, 耕播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分是白乎所, 旱餘甘露, 伊始旋止,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인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 및 콩·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모내기한 논은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이제 시작했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3. 1892년(고종 29) 윤6월 5일(양력 7월 28일)

廣營啓錄 6책(67b~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b~208b)

啓

見今日旱太甚, 民情渴悶, 本府祈雨祭, 不卜日以今初六日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金
奭熙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현재 날로 가뭄이 매우 심하여 백성들의 심정이 애타게 걱정스러워 본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이번 초6일에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부 판관 김석희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하
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4. 1892년(고종 29) 윤6월 7일(양력 7월 30일)

廣營啓錄 6책(67b~67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b~208c)

啓

本府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六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卯時量乃止.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三分是白乎所, 渴望之餘, 得此普洽,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祈雨祭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 방금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서나 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5. 1892년(고종 29) 윤6월 9일(양력 8월 1일)

廣營啓錄 6책(68a~68a) /各司謄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謄錄 6책(208c~208c)

啓

本府雨澤, 今月初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五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初八日酉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又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7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초8일 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또 1려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6. 1892년(고종 29) 윤6월 15일(양력 8월 7일)

廣營啓錄 6책(68a~68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c~208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十四日酉時量始雨, 或霪或灑, 至十五日辰時量〈乃止〉, 所得爲二犁許. 農形段, 早稻黍粟, 方張胚胎, 木綿, 次第開花, 早豆太, 間或結殼, 中稻黍粟, 三除草已畢, 晚稻黍粟及晚移之秧, 三除草, 根耕豆太, 初除草, 木麥, 間或出土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八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진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려가량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늦게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 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7. 1892년(고종 29) 윤6월 16일(양력 8월 8일)

廣營啓錄 6책(68a~6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d~208d)

啓

本府雨澤, 今月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辰時以後, 或霏微或雲陰是如可, 至十六日卯時量, 仍爲開霽. 其間別無所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15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진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6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8. 1892년(고종 29) 윤6월 25일(양력 8월 17일)

廣營啓錄 6책(68b~6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8d~209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今方發穗, 木綿, 方張結穎, 早豆太, 間或結實, 中稻黍粟, 次第胚胎, 晚稻黍粟, 三除草已畢, 根耕豆太, 今始開花, 木麥, 漸就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올콩·올팍은 간혹 열매를 맺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 같이한 콩·팍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89. 1892년(고종 29) 윤6월 26일(양력 8월 18일)

廣營啓錄 6책(68b~68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9a~209a)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二十五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當日申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一鋤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1려 1서가량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0. 1892년(고종 29) 7월 1일(양력 8월 22일)

廣營啓錄 6책(69a~69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9a~209b)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去月二十九日酉時量始雨, 一直滂沱, 至今月初一日卯時量〈乃止〉,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寸八分是白乎〈所〉, 見今雨勢, 連爲霏微, 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짹짹 쏟아지다가 이번 달 초1일 묘시쯤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서나 러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8푼이었습니다. 현재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1. 1892년(고종 29) 7월 6일(양력 8월 27일)

廣營啓錄 6책(69b~69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09c~209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已盡發穗, 木綿, 舉皆結穎, 早豆太, 成實, 中稻黍粟, 間或發穗, 晚稻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張結殼, 木麥今始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판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대부분 다래를 맺었고, 올콩·올팥은 열매가 영글고, 중벼·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2. 1892년(고종 29) 7월 17일(양력 9월 7일)

廣營啓錄 6책(71a~71a)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10c~210c)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幾皆向熟, 木綿, 間或開花, 早豆太, 今始向熟, 中稻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漸就結實, 木麥, 幾盡開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익어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올콩·올팥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중벼·기장·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점 열매를 맺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3. 1892년(고종 29) 7월 20일(양력 9월 10일)

廣營啓錄 6책(71a~7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10c~210d)

啓

本府雨澤, 今月初一日卯時量, 測雨器水深爲六寸八分, 而嗣後形止, 待快晴登聞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判官金奭熙牒呈, 則伊日卯時以後, 或霏灑或雲陰是如可, 至十九日未時量, 仍爲開霽. 其間所得, 不可以鋤犁論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본부 우택은 이번 달 초1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6치 8푼인 것과 이후의 경위는 말끔하게 개이기를 기다려 아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먹구름이 끼더니 19일 미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그사이에 내린 것은 서나려로는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4. 1892년(고종 29) 7월 26일(양력 9월 16일)

廣營啓錄 6책(71b~71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10d~210d)

啓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境內各處, 早稻黍粟, 方張刈取, 中稻黍粟, 次第向熟, 木綿, 今方摘取, 早豆太, 舉皆向熟, 晚稻黍粟, 幾皆發穗, 豆太, 幾盡成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보고합니다.

방금 본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역 내 각 곳의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막 따서 거두고, 올콩·올팥은 대부분 익어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은 거의 다 열매가 영글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5. 1892년(고종 29) 9월 6일(양력 10월 26일)

廣營啓錄 6책(74b~75a) /各司騰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騰錄 6책(212b~212b)

卽接本府判官金奭熙牒呈, 則今月初五日夜,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석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6. 1893년(고종 30) 2월 17일(양력 4월 3일)

廣營啓錄 6책(85a~85b) /各司臚錄 5책, 廣州府留營狀啓臚錄 6책(218a~218b)

卽接本官判官李純宰牒呈, 則今月十五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午時量乃止. 其間所得爲一犁許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이순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597. 1898년(고종 34) 윤3월 3일(양력 4월 23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四月二十三日觀察使金永惠四号報本月十九日申時量始雨^{호야} 或霏或灑^{호와} 二十日寅時에 乃止^{호오니} 府下測雨器水深爲四九寸이온故로 茲에 報告事.

광무 2년 4월 23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4호 보고에, “이번 달 1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인시에 이내 그쳤으니 관찰부의 측우기 수심은 4치이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0598. 1895년(고종 32) 윤3월 27일(양력 5월 17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五月十七日

光武二年五月十七日觀察使金永惠九号報本府雨澤은 本月十七日辰時量에 始雨^ㅎ야 當日酉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四寸이오며 連有雨意故로 茲先報告^ㅎ오니 査照하시믈 要^ㅎ하.

광무 2년 5월 17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9호 보고에, “본 수원부의 우택은 이번 달 17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당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고 연이어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0599. 1895년(고종 32) 4월 22일(양력 5월 10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六月十日觀察使金永惠第二十二号報本府雨澤은 本月九日卯時에 始雨 訐야 十日 巳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二寸四分이옴고 連有雨意故로 茲先報告 訐오니 查照하시믈 爲 要.

광무 2년 6월 10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22호 보고에, “이번 달 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0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0600. 1895년(고종 32) 5월 12일(양력 월 30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六月三十日觀察使金永惠第二十八号本府雨澤이 本月二九日丑時에 始雨 訖야 三十日卯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寸八分이오며 茲에 報告事.

광무 2년 6월 30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28호에, “본 수원부 우택이 이번 달 2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라고 하여 이에 보고합니다.

0601. 1895년(고종 32) 5월 19일(양력 6월 7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七月七日觀察使金永憲第二十九号本府雨澤이 本月五日酉時에 始雨^{호야} 六日巳
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四寸五分이옴고 仍不開霽^{호고} 連有雨意故로 報告事.

광무 2년 7월 7일 관찰사 김영덕 제29호에, “본 수원부 우택이 이번 달 5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6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의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
다. 이내 개이지 않았고 연이어 비올 조짐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0602. 1895년(고종 32) 5월 24일(양력 월 12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七月十二日觀察使金永憲第三十一号本府雨澤이 本月十一日丑時에 始雨^ㄴ야 當日巳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四寸五分이온故로 報告事.

광무 2년 7월 12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31호에, “본 수원부 우택이 이번 달 11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당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0603. 1895년(고종 32) 6월 6일(양력 7월 24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七月二十四日觀察使金永惠第三十五号本府雨澤이 本月二十三日午時에 始雨하여
二十四日巳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이온故로 報告事.

광무 2년 7월 12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35호에, “본 수원부 우택이 이번 달 1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4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습니다.”라
고 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0604. 1895년(고종 32) 6월 19일(양력 7월 6일)

公文編案 82책

光武二年八月六日觀察使金永惠第四十三号本府雨澤이 本月三日戌時에 始雨^{하야} 五日巳時至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七寸이온故로 報告事.

광무 2년 8월 6일 관찰사 김영덕의 제43호에, “본 수원부 우택이 이번 달 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5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관찰부의 측우기 수심은 7치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0605. 1845년(헌종 11) 6월 8일(양력 7월 12일)

華營啓錄 3책(12a~1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40c~240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蔡學永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甦]麥已盡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移秧了畢, 根耕豆太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채학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를 다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06. 1845년(헌종 11) 6월 28일(양력 8월 1일)

華營啓錄 3책(12b~12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240d~240d)

今月二十二日卯時至, 得雨合一尺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鄭基轍牒呈, 則伊後載陰載陽是如可, 二十五日申時量, 仍爲開霽是乎旆, 境內農形, 早稻胚胎, 晚稻乾播, 三除草方張, 移秧再除草方始, 根耕豆太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임
천·비인

이번 달 22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총 1자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부 판관 정기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5일 신시쯤에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이삭을 배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07. 1845년(헌종 11) 8월 19일(양력 9월 20일)

華營啓錄 3책(16b~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43a~243a)

卽接本府判官鄭基轍牒呈, 則境內農形, 早稻已盡刈取, 晚稻乾播, 已盡向黃, 移秧已盡發穗, 根耕豆太結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미 다 누렇게 익어가고,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08. 1845년(헌종 11) 9월 5일(양력 10월 5일)

華營啓錄 3책(17a~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43b~243b)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洪憲榮牒呈, 則今月初四日, 曉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
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 찰방 홍헌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09. 1846년(헌종 12) 6월 15일(양력 8월 6일)

華營啓錄 3책(35b~3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4b~254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蔡學永牒呈, 則今初九日之雨, 一晝夜暴霖, 幾近二尺, 川水大漲, 北水門下排磚石, 動退漂流, 內虹霓石門及上鋪廳板石, 盡爲頽圯, 門樓隨以全體頽圯, 南水門·外虹霓石門及上鋪廳板石, 盡爲頽圯, 梅香石橋, 亦盡爲壞圯, 因之水勢汎濫橫決, 從南暗門出去, 門底所鋪磚石, 亦皆衝激翻動, 門樓隨以乍欹, 西屯堤水越口, 西邊體洞, 亦爲潰決, 城內外川邊低下處人家, 漂沒頽壓, 竝爲十五戶, 其外城堞樓櫓之許多頃處, 難以枚舉是如爲白有臥乎所, 臣適在京中, 聞極驚悚, 還營卽爲這這審觀是白乎則, 一如所報是白如乎, 今番雨水, 無前浩大, 城堞樓櫓, 無不受損, 而至於兩水門及其門樓, 一竝頽圯, 梅香石橋, 亦爲頽圯, 留司拱護, 所重自別, 而如是壞損, 十分悚悶, 修繕補築, 不容少緩是白乎矣, 工役既鉅, 事力甚綿, 勢無以急速經紀, 尤極悚悶是白乎旃, 更良詳加審察, 深量事宜, 其所修補之節, 迫于登聞計料爲白乎旃, 許多民戶之漂壓失所, 亦甚矜憐, 原恤典外, 米斗空石, 優數助給, 結構奠接之意, 另飭於兼判官處是白遣,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채학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9일의 비로 온 밤낮으로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거의 2자에 가깝고 시냇물이 크게 불어나 북수문 아래 놓여진 벽돌이 밀려 떠내려갔고 안쪽 홍예문 석문 및 관석은 다 무너졌고 문루를 따라 전체가 무너졌고, 남수문·바깥쪽 홍예문 석문 및 위쪽에 간 청관석은 다 무너졌고, 매향석교도 또한 다 허물어졌는데 물의 형세로 인해 범람하고 옆으로 터져서 남암문으로 나갔고, 문 아래 깔린 벽돌도 또한 세차게 부딪치고 뒤집혀 문루를 따라 쪼개지고 기울어졌습니다. 서문제의 물도랑의 서쪽 전체 둑도 또한 터져서 성 안팎 시냇가 낮은 곳에 있는 백성 집이 떠내려가 가라앉거나 무너진 것은 총 15가구이고 그 밖에 성첩, 누각, 망루가 술하게 탈이 난 곳은 날날이 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마침 서울에 있었지만 듣기에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어 유명으로 돌아와 즉시 날날이 살펴보게 하였더니 하나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빗물이 전에 없이 대단히 커서 성첩, 누각, 망루가 손상입지 않은 것이 없어 양쪽 수문 및 문루의 경우 한꺼번에 무너졌고 매화석교도 또한 무너졌습

니다. 유사를 에워싸고 보호하는 중요함이 분명히 다른데 이같이 무너져 손상되었으니 충분히 두렵고 걱정되어 잘 고치고 보충하여 쌓는데 잠시도 늦출 수가 없지만 공사 일이 이미 벌어졌고 재력이 매우 빈약하여 형세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어 더욱 두렵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상세히 더 살피고 일의 마땅함을 깊이 헤아려 수리하고 보충하는 사항은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술한 백성 집이 떠내려가 깔려 없어진 것도 또한 매우 가엾고 불쌍하여 기본 진흙 외에 쌀과 빈가마니는 넉넉하게 도와주고 집을 지어 잘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겸임 관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0610. 1846년(헌종 12) 6월 17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3책(36b~3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4d~255a)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蔡學永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發穗, 晚稻付種乾播, 三除草已畢, 移秧, 再除草方始, 根耕豆太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채학영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1. 1846년(헌종 12) 6월 27일(양력 8월 18)

華營啓錄 3책(37a~3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5b~255b)

卽接本府判官金炳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已盡發穗, 晚稻付種乾播, 間間胚胎, 移秧
三除草方張, 根耕豆太鋤役垂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됐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간간이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2. 1846년(헌종 12) 7월 10일(양력 8월 31일)

華營啓錄 3책(38a~3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5d~256a)

卽接本府判官金炳冀牒呈, 則今月初九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申時至, 所得爲一掣餘, 而仍爲開霽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9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이내 개었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3. 1846년(헌종 12) 7월 17일(양력 9월 7일)

華營啓錄 3책(38b~3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6a~256a)

卽接本府判官金炳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刈取, 晚稻付種乾播, 已盡發穗, 移秧
間間發穗, 根耕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모내기한 것은 간간이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팥
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4. 1846년(헌종 12) 8월 19일(양력 10월 8일)

華營啓錄 3책(40a~4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56d~256d)

卽接本府判官金炳冀牒呈, 則境內農形, 晚稻付種乾播, 幾盡刈取, 移秧間或刈取, 根耕豆太, 已盡向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모내기한
것은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이미 다 누렇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5. 1847년(헌종 13) 4월 19일(양력 6월 1일)

華營啓錄 3책(51a~5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63b~263b)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肇淵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發穗, 春牟[春麴]麥胚胎, 早稻付種立苗, 晚稻付種, 注秧乾播, 間間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계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것이나 무논에 볍씨 뿌린 것은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6. 1847년(헌종 13) 5월 19일(양력 7월 1일)

華營啓錄 3책(52a~5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63d~263d)

卽接本府判官徐光奎牒呈，則境內農形，秋牟[秋麴]麥間間刈取，春牟[春麴]麥向黃，早稻付種，再除草方始，晚稻付種及乾播，初除草方張，移秧已畢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서광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7. 1848년(헌종 14) 3월 22일(양력 4월 25)

華營啓錄 3책(67a~6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72c~272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肇淵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茂, 春牟[春麴]麥向青, 鎗役
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계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8. 1848년(헌종 14) 4월 28일(양력 5월 30)

華營啓錄 3책(68a~6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72d~273a)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肇淵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發穗, 春牟[春麴]麥胚胎, 早稻付種立苗, 晚稻付種, 注秧乾播, 間間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이계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무논에 볍씨를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것이나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19. 1850년(철종 1) 2월 21일(양력 4월 3일)

華營啓錄 3책(12a~1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1d~292a)

卽接本府判官洪鍾序牒呈, 則今月二十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亥時至, 所得爲一掬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홍종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0. 1850년(철종 1) 3월 6일(양력 4월 17일)

華營啓錄 3책(13b~1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2d~293a)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初四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五日寅時至, 所得洽爲一犁, 而仍爲開霽是乎旃,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境內農形段,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흙죽하게 1려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1. 1850년(철종 1) 3월 25일(양력 5월 6일)

華營啓錄 3책(14a~1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3a~293b)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二十四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巳時至, 所得爲一鋤, 而仍爲開霽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如爲自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2. 1850년(철종 1) 4월 8일(양력 5월 19일)

華營啓錄 3책(15b~1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3d~293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初六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七日丑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관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3. 1850년(철종 1) 4월 16일(양력 5월 27일)

華營啓錄 3책(16a~1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4a~294a)

道光三十年四月十六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十五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寅時至, 所得爲四犁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관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4. 1850년(철종 1) 4월 28일(양력 6월 8일)

華營啓錄 3책(16b~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4c~294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二十五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七日寅時至, 所得爲五犁餘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5려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5. 1850년(철종 1) 5월 7일(양력 6월 16일)

華營啓錄 3책(17a~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4d~294d)

道光三十年五月初七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間間刈取, 春牟[春麴]麥入實, 早稻付種初除草方張, 晚稻乾播初除草方始,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관 윤명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6. 1850년(철종 1) 5월 13일(양력 6월 22일)

華營啓錄 3책(17a~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4d~294d)

道光三十年五月十三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明儉牒呈, 則今月十一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二日巳時至, 所得爲一鋤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관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7. 1850년(철종 1) 5월 17일(양력 6월 26일)

華營啓錄 3책(17b~1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5a~295a)

道光三十年五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幾盡刈取, 春牟[春甦]麥向黃, 早稻付種
初除草了畢, 晚稻乾播初除草及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검임 중관 윤명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
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보내기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8. 1850년(철종 1) 5월 17일(양력 6월 26일)

華營啓錄 3책(17b~1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5a~295a)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幾盡刈取, 春牟[春麴]麥向黃, 早稻付種
初除草了畢, 晚稻乾播初除草及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 및 모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29. 1850년(철종 1) 6월 5일(양력 7월 13일)

華營啓錄 3책(109b~10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6a~296a)

道光三十年六月初五日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初三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寅時至, 所得爲一犁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0. 1850년(철종 1) 5월 27일(양력 7월 6일)

華營啓錄 3책(18a~18a) /各司騰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騰錄 1책(295b~295b)

道光三十年五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已盡刈取, 春牟[春麴]麥間間刈取, 早稻付種再除草方始, 晚稻乾播初除草了畢, 移秧了畢, 豆太根耕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는 다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1. 1850년(철종 1) 6월 7일(양력 7월 15일)

華營啓錄 3책(109b~10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6a~296b)

今月初四日寅時至, 得雨一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伊後連爲霏灑, 初六日巳時至, 所得又爲一犁, 仍爲開霽, 而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乎旆, 境內農形, 春牟[春甿]麥已盡刈取, 早稻付種再除草了畢, 晚稻乾播再除草方始, 豆太根耕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6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려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콩·팥은 그루갈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2. 1850년(철종 1) 6월 10일(양력 7월 18일)

華營啓錄 3책(109b~11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6b~296b)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申在義牒呈, 則今月初七日戌時量始雨, 連爲霏灑, 初九日卯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滿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通計前後, 合爲一尺八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화영도찰방 신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8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0633. 1850년(철종 1) 6월 13일(양력 7월 21일)

華營啓錄 3책(110a~11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6b~296c)

今月初九日卯時至, 得雨一尺八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申在義牒呈, 則伊後或霏灑或止歇, 當日丑時至, 所得又爲一犁, 而仍爲開霽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우택가 7월 17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1자 8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신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17일 이후 비가 내렸는데 혹 부슬부슬 가랑비를 뿌리다가 당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려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4. 1850년(철종 1) 6월 18일(양력 7월 26일)

華營啓錄 3책(110a~11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6c~296c)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十五日丑時量始雨, 連爲霏灑, 十七日卯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滿, 田畝之汰覆, 民家之滄頽, 間多有之, 言念民事, 誠爲憂悶, 而營下測雨器水深爲八寸八分是乎跡, 境內農形, 早稻付種三除草方始, 晚稻乾播再除草方張, 移秧再除草方始, 豆太根耕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가 없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논밭이 사태로 뒤덮이고 백성 집이 무너지고 그사이 이런 일이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8치 8푼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5. 1850년(철종 1) 6월 27일(양력 8월 4일)

華營啓錄 3책(110b~110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296d~296d)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二十五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申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溢, 原野沈覆, 田畝各穀, 舉多受損, 言念穡事, 大爲憂悶是乎旃, 至若民舍之頽壓, 待面報之齊到, 詳細更報是芻遺, 境內農形段, 早稻付種三除草了畢, 晚稻乾播三除草方始, 移秧再除草方張, 豆太根耕鋤役方始是如爲白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들판은 잠기고 뒤덮여 논 밭의 각종 곡식은 거의 손상입은 것이 많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크게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백성 집이 무너진 경우, 면의 보고가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상세히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6. 1850년(철종 1) 7월 2일(양력 8월 9일)

華營啓錄 3책(111b~11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7b~297b)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去月三十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巳時至, 所得爲二犁餘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30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7. 1850년(철종 1) 7월 7일(양력 8월 14일)

華營啓錄 3책(112a~112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297c~297d)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初五日酉時量, 又爲始雨, 或霏或灑, 初六日寅時至, 所得爲二犁餘, 而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乎旃, 境內農形段,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三除草了畢, 移秧再除草幾盡了畢, 根耕豆太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2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8. 1850년(철종 1) 7월 13일(양력 8월 20일)

華營啓錄 3책(112b~11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7d~298a)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初十日申時量, 又爲始雨, 或霏或灑, 十一日寅時至, 所得爲一犁, 而仍爲開霽是乏遣, 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如爲白乎旆, 續接其所報, 六月以後, 尺雨頻作, 田畚民戶, 舉多受損是白在如中, 今月初三日, 海潮又爲汎濫, 各面多有沈墊漂壓之患是如乙仍于, 聞甚驚心, 分遣將吏, 使之——摘奸是白乎則, 本府松洞·楊澗·土津·水北·宗德·青龍·宿城·玄岩·浦內·梧井·廣德·貢鄉·八吞·長安·草長·五朶·佳士·鴨汀·雨井等十九面, 俱以濱海之地, 公私堰畚之潰決, 爲三百七十七石十斗落, 民家漂壓, 爲四十八戶是白遣, 外他各面依山傍川之地, 沈覆汰落之田畚, 又爲一千二百三十三石九斗落, 人家頽壓, 亦爲三十一戶是如白乎所, 一境之內, 田畚屋廬之受損, 若是夥然, 尤萬萬驚心, 堤堰之可以修築者, 役丁空石, 優數助給, 使之從速完築是白遣, 頽壓民戶段, 區別大中小戶, 優給恤典後, 另飭各該面任, 俾卽結構奠接之意, 甘飭於本府判官爲白乎旆, 本府幅圓闊大, 差遣將吏, 詳細摘奸後, 登聞計料乙仍于, 致此修啓之稽滯, 不勝悚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0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내린 비가 1려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이후 1자 정도의 비가 빈번하게 내려 논밭이나 백성 집이 거의 손상 입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 달 초3일에 바닷물이 또 범람하여 각 면이 깊이 잠기거나 떠내려가거나 무너지는 근심이 많았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 장리를 나누어 보내 하나하나 캐내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원부 송동·양간·토진·수북·종덕·청용·숙성·현암·포내·오정·광덕·공향·팔탄·장안·초장·오타·가사·압정·우정 등 19개 면은 모두 바닷가 지역으로 관아나 개인의 간척한 논이 터진 것은 377섬 10마지기이고, 백성 집이 떠내려가 건 무너진 것은 489가구입니다. 그밖의 각 면은 산골짜기나 시냇가 지역으로 깊이 잠기거나 사태로 떨어져 나간 논밭이 또 1,233섬 9마지기이고 백성 집이 무너진 것도 또한 31가구라고 합니다. 온 지역 내 논밭이나 집 중 손상입은 것이 이처럼 상당하니 더욱

매우 놀라워 제방을 고쳐 쌓을 자, 일꾼, 빈가마니를 넉넉하게 도와주어 속히 완전히 쌓도록 하였습니다. 무너진 백성 집의 경우, 대·중·소 가구를 구별하여 흠전을 넉넉히 준 후 별도로 해당 면임에게 지시하여 즉시 집을 지어 머물러 살게 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에게 문서로 지시하였습니다. 본 수원부 일대가 넓고 커서 장리를 선정해 보내 상세하게 캐낸 후 아릴 계획인데 이렇게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지체되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39. 1850년(철종 1) 7월 17일(양력 8월 24일)

華營啓錄 3책(113a~11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8b~298b)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間間向黃, 晚稻乾播胚胎, 移秧三除草方始, 根耕豆太鋤役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0. 1850년(철종 1) 8월 18일(양력 9월 23일)

華營啓錄 3책(115a~11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9c~299c)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已盡刈取, 晚稻乾播, 間間向黃, 移秧已盡發穗, 根耕豆太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간간이 누렇게 익어가고,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이삭이 됐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1. 1850년(철종 1) 9월 9일(양력 10월 13일)

華營啓錄 3책(116a~11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299d~299d)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晚稻乾播間間刈取, 移秧及根耕豆太, 已盡向黃是如
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모내기한 모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누렇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2. 1851년(철종 2) 3월 21일(양력 4월 22일)

華營啓錄 3책(130a~13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7b~37b)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鍾役方張是如
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3. 1851년(철종 2) 3월 27일(양력 4월 28일)

華營啓錄 3책(130a~13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7b~37b)

咸豐元年三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今月二十四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二十六日丑時至, 所得幾近一犁是乎跡, 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4. 1851년(철종 2) 4월 12일(양력 5월 12일)

華營啓錄 3책(131a~13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7d~38a)

卽接本府判官趙然明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茁長, 春牟[春麴]麥向茂, 早稻付種間間
〈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5. 1851년(철종 2) 4월 22일(양력 5월 22일)

華營啓錄 3책(131b~13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8b~38b)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巳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旃,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境內農形段, 秋牟[秋麴]麥發穗, 春牟[春麴]麥茁長早稻付種方張, 注秧及晚稻乾播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이내 개었으며,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한창이고, 늦벼는 모판에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6. 1851년(철종 2) 5월 3일(양력 6월 2일)

華營啓錄 3책(132b~13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8d~38d)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入實, 春牟[春麴]麥胚胎, 早稻付種注秧及晚稻乾播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有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올벼는 무논에 벼씨 뿌리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벼씨를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벼씨 뿌리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7. 1851년(철종 2) 5월 11일(양력 6월 10일)

華營啓錄 3책(133a~13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09a~309b)

咸豐元年五月 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十日寅時至, 所得幾近二
犁是乎旃,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정도이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8. 1851년(철종 2) 5월 13일(양력 6월12일)

華營啓錄 3책(133b~13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09b~309b)

咸豐元年五月十三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向黃, 春牟[春甦]麥入實, 早稻付種向青, 注秧及晚稻乾播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푸르러지고, 못자리에 불린 벼씨를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49. 1851년(철종 2) 5월 23일(양력 6월 22일)

華營啓錄 3책(134a~13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09c~309d)

咸豐元年五月二十三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間間刈取, 春牟[春麴]麥向黃, 早稻付種初除草方始, 晚稻乾播向青,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푸르러지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0. 1851년(철종 2) 5월 29일(양력 6월 28일)

華營啓錄 3책(135a~13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a~310a)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跨朔亢旱, 水泉乾涸, 田野龜坼, 目下民情, 萬萬渴悶是如爲白有
如乎, 見今夏至已過, 一直惜乾, 民事之罔措, 誠如所報是白乎等以, 祈雨祭, 以六月初二日虔
誠設行之意, 申飭於本府判官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한달 동안 오랜 가뭄으로 샘물이
메마르고 밭과 들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니 현재 백성들의 심정이 매우 애타고 걱정스럽다
고 합니다. 현재 하지는 이미 지났고 줄곧 가뭄어 백성들의 일에 조치할 바 없는 것이
정말로 보고한 대로입니다. 기우제는 6월 초2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1. 1851년(철종 2) 6월 2일(양력 6월 30일)

華營啓錄 3책(135a~13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b~310b)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去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寅時至, 所得爲四犁餘, 而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三分是如爲白乎所, 渴望之餘, 得此甘霖, 爲民事誠極萬幸,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 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 넘짓이고 유형의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쏟아지니 백성들의 일에 정말로 매우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2. 1851년(철종 2) 6월 3일(양력 7월 1일)

華營啓錄 3책(135b~13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b~310c)

本府祈雨祭, 以今月初二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連接其所報, 則今月初一日寅時量, 得雨四寸三分之後或霏或止是乎乃, 旱乾之餘, 甘露稍洽, 萎枯之苗, 方有移插之望是如爲白乎旆, 見今油雲方濃, 雨意尙多, 再次祈雨祭, 姑爲觀勢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後

獻官, 水原府判官趙奎淳

大祝, 幼學元世胤

執禮, 幼學尹守淵

執事, 幼學李基德

幼學金宣成

幼學金宜柱

幼學張錫周

본 수원부 기우제를 이번 달 초2일에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연이어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인시쯤에 내린 비가 4치 3푼이었고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그쳤는데 가뭄 끝에 단비가 쏟아져 조금 흠족하니 시든 모종은 바야흐로 옮겨 심을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구름이 막 짙어지니 비올 조짐이 여전히 많으니 2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뒤

헌관: 수원부 판관 조규순

대축: 유학 원세훈

집례: 유학 윤수연

집사: 유학 이기덕·유학 김선성·유학 김의주·유학 장석주

0653. 1851년(철종 2) 6월 4일(양력 7월 2일)

華營啓錄 3책(136a~13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c~310d)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已盡刈取, 春牟[春麴]麥間間刈取, 早稻
付種初除草方張, 晚稻乾播初除草方始, 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가
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
고 모내기는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4. 1851년(철종 2) 6월 5일(양력 7월 3일)

華營啓錄 3책(136a~13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d~310d)

今月初一日寅時至, 得雨四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三日申時量, 更爲霏灑, 初四日寅時至, 所得爲二犁, 而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是白乎所, 霑潤之餘, 甘露繼洽, 祈雨祭仍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신시쯤에 다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고,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2치이었습니다. 촉촉하게 적신 끝인데다 단비가 계속 쏟아져 흠족하니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5. 1851년(철종 2) 6월 14일(양력 7월 12일)

華營啓錄 3책(136b~13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0d~311a)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甦]麥已盡刈取, 早稻付種初除草了畢, 晚稻乾播初除草方張, 移秧已盡了畢, 根耕豆太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라·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이미 다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6. 1851년(철종 2) 6월 20일(양력 7월 18일)

華營啓錄 3책(137a~13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1b~311b)

咸豐元年六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幹牒呈, 則今月十八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九日寅時至, 所得爲二犁餘是乎旂, 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7. 1851년(철종 2) 6월 24일(양력 7월 22일)

華營啓錄 3책(137a~13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1b~311b)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再除草方始, 晚稻乾播初除草了畢, 移秧了畢, 根耕豆太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도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8. 1851년(철종 2) 7월 5일(양력 8월 1일)

華營啓錄 3책(138b~13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a~312a)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再除草了畢, 晚稻乾播再除草方始, 移秧初除草方始, 根耕豆太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콩·팥은 그루갈이를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59. 1851년(철종 2) 7월 15일(양력 8월 11일)

華營啓錄 3책(139a~13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b~312b)

咸豐元年七月十五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胚胎, 晚稻乾播再除草了畢, 移秧初除草了畢.
根耕豆太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이삭을 배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건파해서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
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0. 1851년(철종 2) 7월 16일(양력 8월 12일)

華營啓錄 3책(139a~13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b~312b)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五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辰時至, 所得幾近二犁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에 가까웠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1. 1851년(철종 2) 7월 21일(양력 8월 17일)

華營啓錄 3책(139a~13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b~312c)

今月十五日辰時至, 得雨一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或霑灑或霏微, 二十日酉時至, 所得又爲五犁餘是乎旆, 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0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5려 남짓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2. 1851년(철종 2) 7월 25일(양력 8월 21일)

華營啓錄 3책(139b~13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c~312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境內農形, 早稻發穗, 晚稻乾播三除草方始, 移秧再除草方始, 根耕豆太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
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3. 1851년(철종 2) 8월 6일(양력 9월1일)

華營啓錄 3책(139b~13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c~312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境內農形, 早稻向黃, 晚稻乾播三除草了畢, 移秧再除草方張, 根耕豆太鋤役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4. 1851년(철종 2) 8월 9일(양력 9월 4일)

華營啓錄 3책(139b~14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2d~312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幹牒呈, 則今月初六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七日寅時至, 所得爲六犁餘, 而川渠漲滿是乎旃, 營下測雨器水深爲六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6려 남짓이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5. 1851년(철종 2) 8월 13(양력 9월 8일)

華營啓錄 3책(140a~140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12d~313a)

今月初七日寅時至, 得雨六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伊後連爲霍灑, 十二日酉時至, 所得又爲六犁餘, 而川渠漲滿, 原野沈墊, 田畝各穀, 不無受損之慮, 言念穡事, 誠爲悶然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6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6려 남짓이었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들판이 물에 잠겨 논밭의 각종 곡식이 손상입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6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6. 1851년(철종 2) 8월 16일(양력 9월 11일)

華營啓錄 3책(141b~14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13c~313d)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許榦牒呈, 則境內農形, 早稻間間刈取, 晚稻乾播發穗, 移秧胚胎, 根耕
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허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이 났고, 모내기한
것은 알을 배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7. 1852년(철종 3) 2월 2일(양력 3월 22일)

華營啓錄 3책(160a~16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24a~324b)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一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亥時至, 所得爲一鋤,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8. 1852년(철종 3) 3월 21일(양력 5월 9일)

華營啓錄 3책(173a~1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a~332a)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則今月二十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同日未時至，所得爲一鋤，而油雲漸合，尙未快霽是乎旆，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었고 비구름이 점점 합쳐져서 아직 말끔하게 개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69. 1852년(철종 3) 3월 22일(양력 5월 10일)

華營啓錄 3책(173a~1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a~332a)

今月二十日未時至, 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連爲霏灑, 二十一日卯時至, 所得又爲一鋤,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서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0. 1852년(철종 3) 3월 22일(양력 5월 10일)

華營啓錄 3책(173a~1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a~332b)

咸豐二年三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茁長, 春牟[春麴]麥向青, 鋤役已畢, 早稻付種方張, 注秧及晚稻乾播方始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싹이 자라고 봄보리·봄밀은 푸르러지고, 가래질은 이미 마치고 무논에 올벼 볍씨 뿌리기가 한창이고, 못자리에 물 대기 및 마른 논에 늦벼 볍씨 뿌리기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1. 1852년(철종 3) 3월 21일(양력 5월 9일)

華營啓錄 3책(173a~1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a~332a)

咸豐二年三月二十一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日, 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未時至, 所得爲一鋤, 而油雲漸合, 尙未快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서이었고 구름이 몰려 점점 합해지니 아직 시원하게 개이지 않았습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2. 1852년(철종 3) 3월 22일(양력 5월 10일)

華營啓錄 3책(173a~1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a~332b)

咸豐二年三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茁長, 春牟[春麴]麥向青, 鋤役已畢, 早稻付種方張, 注秧及晚稻乾播方始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마쳤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3. 1852년(철종 3) 3월 24일(양력 5월 12일)

華營啓錄 3책(173b~17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2b~332b)

咸豐二年二月[三月]二十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三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至, 所得爲一鋤餘, 而伊後霏微止歇是如可, 當日卯時量, 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서 정도였습니다. 그 후 부슬부슬 내리거나 그치다가 당일 유시쯤에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4. 1852년(철종 3) 4월 8일(양력 5월 26일)

華營啓錄 3책(174b~17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3a~333a)

咸豐二年四月初八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明錫牒呈, 則今月初七日卯時量始雨, 或霪或灑, 當日卯時至, 所得爲二犁餘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이명석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5. 1852년(철종 3) 4월 12일(양력 5월 30일)

華營啓錄 3책(175a~17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3a~333b)

咸豐二年四月十二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明錫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發穗, 春牟[春麴]麥茁長, 早稻
付種立苗, 注秧及晚稻乾播付種已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검임 중군 이명석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나 무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6. 1852년(철종 3) 4월 14일(양력 6월 1일)

華營啓錄 3책(175a~17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3b~333b)

咸豐二年四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三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卯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이 1려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7. 1852년(철종 3) 4월 22일(양력 6월 9일)

華營啓錄 3책(176a~17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4a~334a)

咸豐二年四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入實, 春牟[春甦]麥胚胎, 早稻付種向青, 注秧及晚稻乾播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푸르러지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것이나 무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8. 1852년(철종 3) 4월 28일(양력 6월 15일)

華營啓錄 3책(176b~176b) /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4a~334b)

咸豐二年四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一犁是乎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79. 1852년(철종 3) 5월 2일(양력 6월 19일)

華營啓錄 3책(176b~17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4b~334b)

咸豐二年五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向黃, 春牟[春甦]麥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始, 晚稻乾播向青,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푸르러지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0. 1852년(철종 3) 5월 2일(양력 6월 19일)

華營啓錄 3책(177a~17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4b~334c)

咸豐二年五月初二日

去月二十七日申時至, 得雨一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連爲陰暄是如可, 去月三十日申時量, 又爲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卯時至, 所得爲二犁餘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27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흐리고 구름이 끼어 있다가 지난 달 30일 신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정도이었고, 저의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1. 1852년(철종 3) 5월 4일(양력 6월 21일)

華營啓錄 3책(177a~17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4c~334c)

咸豐二年五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三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巳時至, 所得爲一犁, 而仍爲開霽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2. 1852년(철종 3) 5월 9일(양력 6월 26일)

華營啓錄 3책(178a~17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5a~335b)

咸豐二年五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九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申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9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라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3. 1852년(철종 3) 5월 12일(양력 6월 29일)

華營啓錄 3책(178b~17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5b~335b)

咸豐二年五月十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間間刈取, 春牟[春麴]麥入實,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晚稻乾播, 初除草方始, 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4. 1852년(철종 3) 5월 14일(양력 7월 1일)

華營啓錄 3책(178b~17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5b~335b)

咸豐二年五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三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四日卯時至, 所得爲二犁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5. 1852년(철종 3) 5월 18일(양력 7월 5일)

華營啓錄 3책(179b~179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35d~336a)

咸豐二年五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七日卯時量始雨, 或霪或灑, 十八日卯時至, 所得爲二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7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정도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6. 1852년(철종 3) 5월 20일(양력 7월 7일)

華營啓錄 3책(179b~18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6a~336a)

咸豐二年五月二十日

今月十八日卯時至, 得雨二寸二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或霏灑止歇, 二十日寅時至, 所得又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그쳤는데 20일 인시까지 내린 것이 또 1려정도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7. 1852년(철종 3) 5월 22일(양력 7월 9일)

華營啓錄 3책(180b~18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6b~336b)

咸豐二年五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已盡刈取, 春牟[春甦]麥向黃, 早稻付種, 初除草已畢, 晚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已畢, 豆太根耕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8. 1852년(철종 3) 5월 27일(양력 7월 14일)

華營啓錄 3책(180b~18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6b~336c)

咸豐二年五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四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卯時至, 所得爲五犁餘, 而川渠漲滿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5려정도이었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89. 1852년(철종 3) 5월 29일(양력 7월 16일)

華營啓錄 3책(180b~181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36c~336c)

咸豐二年五月二十九日

今月二十六日卯時至, 得雨五寸七分之中,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或霏灑止歇, 二十八日卯時至, 所得又爲四犁餘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5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그쳤고 2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4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0. 1852년(철종 3) 6월 3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3책(181a~18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6c~336d)

咸豐二年六月初三日

即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甦]麥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移秧初除草方始, 豆太根耕方張是乎跡, 近日以來, 忽有蟲災, 田穀則受損偏甚, 近田之畓, 亦未免犯食秧苗之慮, 言念民事, 誠極悶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한창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벌레 재해가 생겨 밭의 곡식이 손상입은 것이 매우 심하고 밭 근처 논도 또한 모가 갇아먹을 염려를 면하지 못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1. 1852년(철종 3) 6월 5일(양력 7월 21일)

華營啓錄 3책(182a~182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37b~337b)

咸豐二年六月初五日

去月二十八日卯時至, 得雨四寸七分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載陰載陽是如可, 今月初三日戌時量, 更爲霏灑, 初四日卯時至, 所得爲二犁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28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4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2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였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0692. 1852년(철종 3) 6월 8일(양력 7월 24일)

華營啓錄 3책(182a~18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7b~337c)

咸豐二年六月初八日

今月初四日卯時至, 得雨二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伊後或霏灑止歇, 初七日寅時至, 所得又□. □仍爲開霽是乎脉,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그쳤고 초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3. 1852년(철종 3) 6월 10일(양력 7월 26일)

華營啓錄 3책(182b~18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7c~337c)

咸豐二年六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 或霪或灑, 初九日午時至, 所得爲二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4. 1852년(철종 3) 6월 13일(양력 7월 29일)

華營啓錄 3책(182b~18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7c~337d)

咸豐二年六月十三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方張, 晚稻乾播, 再除草方始, 移秧初除草方張, 豆太根耕已畢是乎旆, 蟲災段, 今番潦水之後, 皆爲寢熄, 言念民事, 誠爲萬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이번 장마 후 모두 그쳤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5. 1852년(철종 3) 6월 23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3책(183a~18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7d~338a)

咸豐二年六月二十三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三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午時至, 所得幾近二犁, 而仍爲開霽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6. 1852년(철종 3) 6월 23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3책(183a~18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7d~337d)

咸豐二年六月二十三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已畢, 晚稻乾播, 再除草方張, 移秧
初除草已畢, 根耕豆太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7. 1852년(철종 3) 7월 2일(양력 8월 16일)

華營啓錄 3책(184b~18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8c~338d)

咸豐二年七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去月二十九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未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跡,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정도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8. 1852년(철종 3) 7월 4일(양력 8월 18일)

華營啓錄 3책(184b~18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8d~338d)

咸豐二年七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 再除草了畢, 移秧再除草方張, 根耕豆太鋤役口口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699. 1852년(철종 3) 7월 9일(양력 8월 23일)

華營啓錄 3책(185a~18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a~339a)

咸豐二年七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初七日戌時量始雨, 或霪或灑, 初八日辰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0. 1852년(철종 3) 7월 14일(양력 8월 28일)

華營啓錄 3책(185a~18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a~339a)

咸豐二年七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向黃, 晚稻乾播胚胎, 移秧再除草了畢, 根耕
豆太鋤役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잡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1. 1852년(철종 3) 7월 17일(양력 8월 31일)

華營啓錄 3책(185b~18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a~339b)

咸豐二年七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五日, 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六日辰時至, 所得幾近二犁,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2. 1852년(철종 3) 7월 20일(양력 9월 3일)

華營啓錄 3책(185b~18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b~339b)

咸豐二年七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日卯時至, 所得爲一犁,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3. 1852년(철종 3) 7월 24일(양력 9월 7일)

華營啓錄 3책(185b~18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b~339b)

咸豐二年七月二十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 □取, 晚稻乾播入實, 移秧發穗, 根耕
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 □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알이 들고 모내기한 것은 이삭이 뻗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4. 1852년(철종 3) 7월 30일(양력 9월 13일)

華營啓錄 3책(186a~18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b~339c)

咸豐二年七月三十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今月二十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九日未時至, 所得爲四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5. 1852년(철종 3) 8월 4일(양력 9월 17일)

華營啓錄 3책(186a~18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39c~339c)

咸豐二年八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趙奎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已盡刈取, 晚稻乾播向黃, 移秧入實, 根耕
豆太結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조규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누렇게 익어가
고, 모내기한 것은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6. 1853년(철종 4) 2월 18일(양력 3월 27일)

華營啓錄 3책(24a~24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49d~349d)

咸豐三年二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十六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七日卯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7. 1853년(철종 4) 3월 2일(양력 4월 9일)

華營啓錄 3책(26a~2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1a~351a)

咸豐三年三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初一日辰時量始雨, 或霪或灑, 當日卯時至, 所得爲三犁餘, 而仍爲開霽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8. 1853년(철종 4) 3월 8일(양력 4월 15일)

華營啓錄 3책(27b~2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2a~352a)

咸豐三年三月初八日

即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09. 1853년(철종 4) 3월 8일(양력 4월 15일)

華營啓錄 3책(28a~2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2a~352a)

咸豐三年三月初八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初七日巳時量始雨, 或霪或灑, 當日未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0. 1853년(철종 4) 3월 8일(양력 4월 15일)

華營啓錄 3책(27b~27b) /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2a~352a)

咸豐三年三月初八日

即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1. 1853년(철종 4) 3월 24일(양력 5월 1일)

華營啓錄 3책(28b~20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2c~352c)

咸豐三年三月二十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 或霪或灑, 二十三日辰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2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2. 1853년(철종 4) 3월 28일(양력 5월 5일)

華營啓錄 3책(209a~20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2c~352c)

咸豐三年三月二十八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茁長, 春牟[春甦]麥向茂, 鍾役了畢, 早稻付種及注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김매기는 다 마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올벼는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3. 1853년(철종 4) 4월 6일(양력 5월 13일)

華營啓錄 3책(209b~21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a~353a)

咸豐三年四月初六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初五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六日卯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5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4. 1853년(철종 4) 4월 8일(양력 5월 15일)

華營啓錄 3책(210a~21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b~353b)

咸豐三年四月初八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胚胎, 春牟[春麴]麥茁長, 早稻
付種立苗, 注秧及晚稻乾播, 間間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싹이 나와 자라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를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5. 1853년(철종 4) 4월 10일(양력 5월 17일)

華營啓錄 3책(210a~21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b~353b)

咸豐三年四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初八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十日巳時至, 所得爲一鋤餘,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6. 1853년(철종 4) 4월 16일(양력 5월 23일)

華營啓錄 3책(210b~21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c~353c)

咸豐三年四月十六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十四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五日酉時至, 所得爲一鋤餘, 而仍爲開霽是乎旃,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점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6서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7. 1853년(철종 4) 4월 18일(양력 5월 25일)

華營啓錄 3책(210b~21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c~353c)

咸豐三年四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發穗, 春牟[春甦]麥胚胎, 早稻付種向青, 注秧及晚稻乾播, 已盡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푸르러 지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이미 다 짚이 돌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8. 1853년(철종 4) 4월 20일(양력 5월 27일)

華營啓錄 3책(210b~210b) /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c~353d)

咸豐三年四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十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巳時至, 所得爲一鋤,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서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19. 1853년(철종 4) 4월 28일(양력 6월 4일)

華營啓錄 3책(210b~21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3d~353d)

咸豐三年四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向黃, 春牟[春甦]麥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始, 晚稻乾播向青, 移秧間間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삭이 패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푸르러지고, 모내기는 간간이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0. 1853년(철종 4) 5월 15일(양력 6월 21일)

華營啓錄 3책(211b~21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4b~354b)

咸豐三年五月十五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十四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一犁餘,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1. 1853년(철종 4) 5월 18일(양력 6월 24일)

華營啓錄 3책(212b~21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4d~354d)

咸豐三年五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已盡刈取, 春牟[春甦]麥間間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間間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간간이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2. 1853년(철종 4) 5월 16일(양력 6월 22일)

華營啓錄 3책(212a~21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4b~354c)

咸豐三年五月十六日

今月十四日申時至, 得雨一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伊後連爲霏灑, 十五日戌時至, 所得爲一犁餘,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5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형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3. 1853년(철종 4) 6월 4일(양력 7월 9일)

華營啓錄 3책(214a~21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c~355c)

咸豐三年六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初三日亥時量始雨, 或霪或灑, 當日巳時至, 所得幾近一犁是乎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4. 1853년(철종 4) 5월 28일(양력 7월 4일)

華營啓錄 3책(213b~21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b~355b)

咸豐三年五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甦]麥已盡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張,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移秧了畢, 豆太根耕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는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5. 1853년(철종 4) 6월 5일(양력 7월 10일)

華營啓錄 3책(214a~21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c~355c)

咸豐三年六月初五日

今月初四日巳時至, 得雨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伊後陰暄是如可, 同日未時量, 更爲霏灑, 申時至所得爲一鋤, 而初五日辰時量, 仍爲開霽是乎旅,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사시까지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흐리고 구름이 끼다가 같은 날 미시쯤에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서였습니다. 초5일 진시쯤에 이내 개었습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6. 1853년(철종 4) 6월 9일(양력 7월 14일)

華營啓錄 3책(214a~21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c~355d)

咸豐三年六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了畢, 晚稻乾播, 再除草方始, 移秧
初除草方始, 豆太根耕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
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이라
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7. 1853년(철종 4) 6월 10일(양력 7월 15일)

華營啓錄 3책(214b~21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d~355d)

咸豐三年六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初十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辰時至, 所得爲四犁,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8. 1853년(철종 4) 6월 11일(양력 7월 16일)

華營啓錄 3책(214b~214b) /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5d~355d)

咸豐三年六月十一日

今月初十日辰時至, 得雨四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辰時至, 所得又爲三犁餘, 而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3려 정도였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29. 1853년(철종 4) 6월 14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3책(214b~21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6a~356a)

咸豐三年六月十四日

今月十一日辰時至, 得雨三寸七分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伊後連爲霏灑, 十三日未時至, 所得又爲八犁餘是乎所, 田畝之傍川低下處, 間多沈墊, 各穀不無受損之慮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八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3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3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8려 정도였는데, 시냇가 낮은 곳의 논밭은 그 사이 깊이 잠긴 것이 많았고 각종 곡식은 손상 입을 염려가 없지 않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8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0. 1853년(철종 4) 6월 19일(양력 7월 24일)

華營啓錄 3책(215a~21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6a~356b)

咸豐三年六月十九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三除草方始, 晚稻乾播, 再除草方張, 移秧初除草方張, 豆太根耕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짓은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이미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1. 1853년(철종 4) 6월 29일(양력 8월 3일)

華營啓錄 3책(215b~215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56c~356c)

咸豐三年六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三除草方張, 晚稻乾播, 再除草了畢, 移秧
初除草了畢, 根耕豆太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
를 다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삼과 김매기
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2. 1853년(철종 4) 7월 1일(양력 8월 5일)

華營啓錄 3책(216a~21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6c~356d)

咸豐三年七月初一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去月三十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戌時至所得爲一鋤, 而連爲陰暄是如可, 當日寅時量, 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20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8서이었고, 연이어 흐리고 구름이 끼다가 당일 인시쯤에 이내 개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3. 1853년(철종 4) 7월 4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3책(216b~2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7a~357b)

咸豐三年七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跨朔亢旱, 水泉乾涸, 田野龜坼是在如中, 日前驟雨, 亦未優洽, 目下民情, 萬萬渴悶是如爲白有知乎, 見今秋節載屆, 一直旱乾, 田種畝穀, 舉皆萎枯, 民事之罔措, 誠如所報是白乎等以, 祈雨祭, 以今初六日虔誠設行之意, 申飭於本府判官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한달이나 심한 가뭄으로 물샘이 메말라 밭과 들이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소나기도 또한 넉넉하고 흠족하지 않으니, 현재 백성들의 심정상 매우 걱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을철이 곧 닥치는데 줄곧 가뭄이니 논 밭 각종 곡식이 대부분 시들고 말라 백성들의 사정상 어찌할 바를 모르니 정말로 보고한 대로라고 합니다. 기우제는 이번 초6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4. 1853년(철종 4) 7월 6일(양력 8월 10일)

華營啓錄 3책(217a~21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7b~357b)

咸豐三年七月初六日

本府祈雨祭, 以今初六日, 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社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再次祈雨祭, 以今初九日, 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를 이번 초6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이번 초9일에 지역 내 팔달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5. 1853년(철종 4) 7월 9일(양력 8월 13일)

華營啓錄 3책(217b~21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7c~357c)

咸豐三年七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三除草了畢, 晚稻乾播, 三除草方張, 豆太根耕鋤役方張是乎旆, 立秋已過, 尙靳一霏, 言念穡事, 極爲可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6. 1853년(철종 4) 7월 9일(양력 8월 13일)

華營啓錄 3책(217b~21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7c~357d)

咸豐三年七月初九日

本府再次祈雨祭, 以今初九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八達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牒, 三次祈雨祭, 以今十二日, 設行於本府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2차 기우제를 이번 초9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팔달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이번 12일에 본 수원부 광교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7. 1853년(철종 4) 7월 12일(양력 8월 16일)

華營啓錄 3책(218a~218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57d~358a)

咸豐三年七月十二日

本府三次祈雨祭, 以今十二日, 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光教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四次祈雨祭, 以今十五日, 設行於龍淵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3차 기우제를 이번 12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광교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4차 기우제는 이번 15일에 용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8. 1853년(철종 4) 7월 15일(양력 8월 19일)

華營啓錄 3책(218b~21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8a~358b)

咸豐三年七月十五日

本府四次祈雨祭, 以今十五日, 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虔誠設行於龍淵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五次祈雨祭, 以今十八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4차 기우제를 이번 15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당일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는 이번 18일에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39. 1853년(철종 4) 7월 18일(양력 8월 22일)

華營啓錄 3책(219a~219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58b~358c)

咸豐三年七月十八日

本府五次祈雨祭, 以今十八日, 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虔誠設行於城神祠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六次祈雨祭, 以今二十一日, 設行於祝萬堤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5차 기우제를 이번 18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당일 성신사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6차 기우제는 이번 21일에 축만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0. 1853년(철종 4) 7월 18일(양력 8월 22일)

華營啓錄 3책(219b~21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8c~358d)

咸豐三年七月十八日

本府六次祈雨祭, 以今二十一日, 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十八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亥時至, 所得爲一犁餘, 而陰雲四低, 尙有繼霈之意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所, 渴悶之餘, 甘澍稍洽, 爲民事誠爲萬幸, 六次祈雨祭, 仍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6차 기우제를 이번 21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2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먹구름이 사방에 끼니 아직 계속 쏟아질 조짐이 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내려 조금 흠족해졌으니 백서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6차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1. 1853년(철종 4) 7월 19일(양력 8월 23일)

華營啓錄 3책(219b~220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58d~358d)

咸豐三年七月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胚胎, 移秧再除草了畢, 根耕豆太鋤役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2. 1853년(철종 4) 7월 21일(양력 8월 25일)

華營啓錄 3책(220b~22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9b~359b)

咸豐三年七月二十一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二十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辰時至, 所得爲一鋤餘是乎旂,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3. 1853년(철종 4) 7월 22일(양력 8월 26일)

華營啓錄 3책(220b~220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59b~359b)

咸豐三年七月二十二日

今月二十一日辰時至, 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辰時至, 所得又爲一鋤餘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서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4. 1853년(철종 4) 7월 29일(양력 9월 2일)

華營啓錄 3책(221a~22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9c~359c)

咸豐三年七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向黃, 晚稻乾播發穗, 移秧胚胎, 根耕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이 뻗고 모내기한 것은 이삭을 배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5. 1853년(철종 4) 8월 4일(양력 9월 6일)

華營啓錄 3책(221a~22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9c~359d)

咸豐三年八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今月初二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三日午時至, 所得爲一鋤, 而仍爲開霽是乎旆,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서이었고 이내 개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6. 1853년(철종 4) 8월 10일(양력 9월 12일)

華營啓錄 3책(221b~22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1책(359d~359d)

咸豐三年八月初十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箕祖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刈取, 晚稻乾播入實, 移秧發穗, 根耕豆太結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김기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알이 들었고, 모내기한 것은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7. 1853년(철종 4) 8월 22일(양력 9월 24일)

華營啓錄 3책(222b~222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60b~360c)

咸豐三年八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境內農形, 早稻已盡刈取, 晚稻乾播, 向黃, 移秧已盡發穗, 根耕
豆太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
다.

0748. 1853년(철종 4) 9월 3(양력 10월 5일)

華營啓錄 3책(223a~223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1책(360c~360c)

咸豐三年九月初三日

卽接本府判官金炳地牒呈, 則今月初三日,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병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49. 1867년(고종 4) 2월 26일(양력 3월 31일)

華營啓錄 2책(9a~9a) /各司騰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騰錄 2책(378b~378b)

丁卯二月二十六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元世煥牒呈, 則境內春牟[春甦]麥, 今已畢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원세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봄보리는 지금 이미 밭갈이를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0. 1867년(고종 4) 2월 29일(양력 4월 3일)

華營啓錄 2책(9b~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78c~378c)

丁卯二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八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寅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旂, 臣營測雨器, 水深爲一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1. 1867년(고종 4) 3월 6일(양력 4월 10일)

華營啓錄 2책(13a~1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0c~380c)

丁卯三月初六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2. 1867년(고종 4) 4월 5일(양력 5월 8일)

華營啓錄 2책(15b~1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1d~381d)

丁卯四月初五日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徐有康牒呈, 則今月初四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五日, 卯時至, 所得爲一鋤餘是如爲白乎旆, 臣營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서유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서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3. 1867년(고종 4) 4월 7일(양력 5월 10일)

華營啓錄 2책(15b~15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1d~382a)

丁卯四月初七日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徐有康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胚胎, 春牟[春麴]麥茁長, 鋤役了畢, 早稻付種方始, 注秧及晚稻, 乾播亦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서유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김매기는 다 마쳤고, 올벼는 무논에 범씨 뿌리기를 막 시작하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범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범씨 뿌리기도 또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4. 1867년(고종 4) 4월 17일(양력 5월 20일)

華營啓錄 2책(16a~1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2a~382b)

丁卯四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發穗, 春牟[春麴]麥胚胎, 早稻付種立苗, 注秧及晚稻, 乾播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5. 1867년(고종 4) 4월 21일(양력 5월 24일)

華營啓錄 2책(16a~1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2b~382b)

丁卯四月二十一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二十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未時至, 所得爲一鋤餘是乎旂, 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정도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6. 1867년(고종 4) 4월 22일(양력 5월 25일)

華營啓錄 2책(16a~1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2b~382c)

丁卯四月二十二日

今月二十日未時至, 得雨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伊後霏灑止歇, 二十二日寅時至, 所得又爲二犁餘是乎旆, 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八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이번 달 20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그쳤고 22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2려 정도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7. 1867년(고종 4) 4월 27일(양력 5월 30일)

華營啓錄 2책(16b~16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2c~382c)

丁卯四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甞]麥已盡發穗, 春牟[春甞]麥間間發穗, 早稻付種, 幾盡立苗, 注秧及晚稻, 乾播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싹이 돋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8. 1867년(고종 4) 5월 18일6월 19일)

華營啓錄 2책(19a~19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4a~384a)

丁卯五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刈取, 春牟[春麴]麥向黃, 付種早稻, 初除草方張, 乾播晚稻, 初除草方始, 移秧因旱未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가뭄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59. 1867년(고종 4) 5월 18일6월 19일)

華營啓錄 2책(19a~1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4a~384b)

丁卯五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八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戌時至, 所得
幾近三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 圭璧將舉, 甘露伊始. 繼
此周洽, 方切顙望,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중군 겸임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
데, 내린 것은 거의 3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기우제
를 장차 거행하고 단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니 이렇게 계속 두루 흠족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0. 1867년(고종 4) 5월 20일(양력 6월 21일)

華營啓錄 2책(20a~2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4d~385a)

丁卯五月二十日

本府祈雨祭, 以今二十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社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再次祈雨祭, 以今二十三日, 設行於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를 입번 20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이번 23일에 광교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1. 1867년(고종 4) 6월 7일(양력 7월 8일)

華營啓錄 2책(22b~2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b~386b)

丁卯六月初七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初五日寅時量始雨, 或霪或灑, 初六日卯時至, 所得幾近五
犁是乎跡, 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5려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
니다.

0762. 1867년(고종 4) 6월 8일(양력 7월 9일)

華營啓錄 2책(22b~2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b~386b)

丁卯六月初八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麴]麥已盡刈取, 付種早稻, 再除草方始, 乾播晚稻, 初除草了畢, 移秧及豆太, 根耕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한 모 및 콩·팥은 그루갈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3. 1867년(고종 4) 6월 13일(양력 7월 14일)

華營啓錄 2책(23a~2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b~386b)

丁卯六月十三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十一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二日卯時至, 所得爲一鋤是乎所, 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4. 1867년(고종 4) 6월 18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2책(23a~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c~386c)

丁卯六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 再除草方張, 乾播晚稻, 再除草方始, 移秧及豆太, 根耕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모 및 콩·팥은 그루갈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5. 1867년(고종 4) 6월 18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2책(23b~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c~386d)

丁卯六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六日寅時量始雨, 霏灑止歇, 十八日辰時至, 所得爲二犁是乎旃, 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그쳤고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유형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6. 1867년(고종 4) 6월 18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2책(23a~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c~386c)

丁卯六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 再除草方張, 乾播晚稻, 再除草方始, 移秧及豆太, 根耕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모 및 콩·팥은 그루갈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7. 1867년(고종 4) 6월 24일(양력 7월 25일)

華營啓錄 2책(23b~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6d~386d)

丁卯六月二十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日卯時量始雨, 或霪或灑, 二十三日申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溢, 濱沿洿下之地, 多有潰缺沈墊之患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合爲一尺三寸是白如乎, 濃雲密布, 尙無開霽之意,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물가 주변 지대가 낮은 지역은 터지거나 깊이 잠길 근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총 1자 3치이었고 짙은 구름이 뻥뻥하게 퍼져있으니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8. 1867년(고종 4) 6월 26일(양력 7월 27일)

華營啓錄 2책(24a~24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6d~387a)

丁卯六月二十六日

今月二十三日申時至, 得雨一尺三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伊後或霏灑或止歇, 二十五日亥時至, 川渠添漲, 亦不可以鋤犁論是如爲白乎跡,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五寸五分, 而密雲四布, 姑無開晴之意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까지 내린 비가 1자 3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더러 그치다가 25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시내와 도랑이 더 불어났고 또한 1서, 1려를 따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고 뽕뽕한 구름이 사방에 퍼지니 일단 맑게 개일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69. 1867년(고종 4) 6월 28일(양력 7월 29일)

華營啓錄 2책(24b~24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7b~387b)

丁卯六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胚胎, 乾播晚稻再除草了畢, 移秧初除草方始, 根耕豆太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0. 1867년(고종 4) 6월 29일(양력 7월 30일)

華營啓錄 2책(24b~2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7b~387c)

丁卯六月二十九日

今月二十五日亥時至, 得雨五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伊後連日陰翳, 或霏或灑, 二十九日卯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越漲是如爲白乎旆, 臣營測雨器, 水深又爲五寸三分是白乎所, 宿水未退, 積雨連添, 依山傍川之處, 頽壓汰落之患, 日有所聞, 極爲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5일 해시까지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고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가 없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었고, 고인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오랜 비가 연이어 더해져 산자락이나 시냇가인 곳은 무너지거나 사태로 떨어져 나갈 근심이 날로 들려오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1. 1867년(고종 4) 7월 9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2책(25b~2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7d~388a)

丁卯七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 間間發穗, 乾播晚稻, 三除草方始, 移秧初
除草方張, 根耕豆太, 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유승관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의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2. 1867년(고종 4) 7월 14일(양력 8월 13일)

華營啓錄 2책(25b~2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a~388a)

丁卯七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今月十三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四日卯時至, 所得爲三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測雨器, 水深爲三寸二分, 而雨勢連霏, 姑未止歇之意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고, 비의 형세는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아직 그칠 조짐이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3. 1867년(고종 4) 7월 19일(양력 8월 18일)

華營啓錄 2책(26a~2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b~388b)

丁卯七月十九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入實, 乾播晚稻三除草方張, 移秧初除草了畢, 根耕豆太, 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알이 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4. 1867년(고종 4) 7월 23일(양력 8월 22일)

華營啓錄 2책(26a~2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b~388b)

丁卯七月二十三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二日午時量始雨, 一直霑下, 同日申時至, 所得幾近二犁是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22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5. 1867년(고종 4) 7월 27일(양력 8월 26일)

華營啓錄 2책(26a~2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b~388c)

丁卯七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辰時至, 所得爲一犁餘是乎旃,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6. 1867년(고종 4) 7월 29일(양력 8월 28일)

華營啓錄 2책(26b~2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c~388c)

丁卯七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向黃, 乾播發穗, 晚秧次第胚胎, 根耕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이 뻗고, 늦모는 차례로 이삭을 배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7. 1867년(고종 4) 7월 29일(양력 8월 28일)

華營啓錄 2책(26b~26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8c~388d)

丁卯七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九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巳時至, 所得爲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8. 1867년(고종 4) 8월 4일(양력 9월 1일)

華營啓錄 2책(27a~27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388d~388d)

丁卯八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初二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午時至, 所得爲三犁是如爲白乎旃,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79. 1867년(고종 4) 8월 10일(양력 9월 7일)

華營啓錄 2책(27a~2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8d~389a)

丁卯八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 間或刈取, 乾播晚稻入實, 移秧次第發穗, 根耕豆太結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는 알이 들고,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0. 1867년(고종 4) 8월 14일(양력 9월 11일)

華營啓錄 2책(27a~27b),各司臚錄 5책,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9a~389a)

丁卯八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三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戌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1. 1867년(고종 4) 8월 17일(양력 9월 14일)

華營啓錄 2책(28a~2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9c~389c)

丁卯八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六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戌時至, 所得
幾近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
데, 내린 것은 거의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
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2. 1867년(고종 4) 8월 20일(양력 9월 17일)

華營啓錄 2책(28b~2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389c~389d)

丁卯八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柳承根牒呈, 則境內農形, 付種早稻, 已盡刈取, 乾播晚稻, 間或向黃, 移秧次第入實, 根耕豆太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유승근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간혹 누렇게
익어가고,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3. 1868년(고종 5) 2월 28일(양력 3월 21일)

華營啓錄 2책(46a~4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00b~400b)

戊辰二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卯時至, 所得爲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4. 1868년(고종 5) 3월 29일(양력 4월 21일)

華營啓錄 2책(57a~5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8b~48b)

戊辰三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未時至, 所得爲一鋤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서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5. 1868년(고종 5) 3월 27일(양력 4월 19일)

華營啓錄 2책(57a~5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8b~48b)

戊辰三月二十七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青, 春牟[春麴]麥立苗, 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6. 1868년(고종 5) 4월 3일(양력 4월 25일)

華營啓錄 2책(58b~5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09a~409a)

戊辰四月初三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二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三日卯時至, 所得爲一掬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7. 1868년(고종 5) 4월 4일(양력 4월 26일)

華營啓錄 2책(58b~58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409a~409a)

戊辰四月初四日

今月初三日卯時至, 得雨一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卯時至, 所得又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亦爲一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8. 1868년(고종 5) 4월 7일(양력 4월 29일)

華營啓錄 2책(58b~5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09a~409b)

戊辰四月初七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茂, 春牟[春麴]麥向青, 鋤役了畢, 早稻付種及注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김매기는 다 마쳤고, 올벼는 무논에 볍씨 뿌리기 및 못자리에 불인 볍씨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89. 1868년(고종 5) 4월 11일(양력 5월 3일)

華營啓錄 2책(58b~5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09b~409b)

戊辰四月十一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初十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至, 所得爲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0. 1868년(고종 5) 4월 17일(양력 5월 9일)

華營啓錄 2책(60a~60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2책(410a~410a)

戊辰四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間間發穗, 春牟[春麴]麥茁長, 早稻付種立苗, 注秧及晚稻, 乾播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1. 1868년(고종 5) 4월 21일(양력 5월 13일)

華營啓錄 2책(61a~6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0d~410d)

戊辰四月二十一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一日卯時至, 所得爲一
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2. 1868년(고종 5) 윤4월 3일(양력 5월 24일)

華營啓錄 2책(63a~6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2b~412b)

戊辰閏四月初三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二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初三日巳時至, 所得幾近二
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3. 1868년(고종 5) 윤4월 8일(양력 5월 29일)

華營啓錄 2책(63b~6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2c~412c)

戊辰閏四月初八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入實, 春牟[春麴]麥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始, 注秧及晚稻, 乾播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4. 1868년(고종 4) 윤4월 11일(양력 6월 1일)

華營啓錄 2책(63b~6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2c~412c)

戊辰閏四月十一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十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一日辰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5. 1868년(고종 5) 윤4월 14일(양력 6월 4일)

華營啓錄 2책(63b~6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2c~412d)

戊辰閏四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四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6. 1868년(고종 5) 윤4월 17일(양력 6월 7일)

華營啓錄 2책(64a~64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412d~412d)

戊辰閏四月十七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七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巳時至, 所得爲四犁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7. 1868년(고종 5) 윤4월 18일(양력 6월 8일)

華營啓錄 2책(64a~6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2d~412d)

戊辰閏四月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向黃, 春牟[春甦]麥已盡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注秧及晚稻, 乾播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798. 1868년(고종 5) 윤4월 22(양력 6월 12일)

華營啓錄 2책(64b~6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a~413a)

戊辰閏四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巳時至, 所得爲一犁,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0799. 1868년(고종 5) 윤4월 25일(양력 6월 15일)

華營啓錄 2책(64b~6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a~413a)

戊辰閏四月二十五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四日酉時量始雨, 或霪或灑, 二十五日卯時至, 所得爲二犁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0. 1868년(고종 5) 윤4월 26일(양력 6월 16일)

華營啓錄 2책(64b~6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a~413b)

戊辰閏四月二十六日

今月二十五日卯時至, 得雨二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報, 則伊後連爲霑灑, 二十六日卯時至, 所得爲三犁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5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1. 1868년(고종 5) 윤4월 28일(양력 6월 18일)

華營啓錄 2책(65a~6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b~413b)

戊辰閏四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間或刈取, 春牟[春麴]麥入實, 早稻付種, 初除草了畢, 晚稻乾播, 初除草方始, 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2. 1868년(고종 5) 5월 5일(양력 6월 24일)

華營啓錄 2책(65b~6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d~413d)

戊辰五月初五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初四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戌時至, 所得爲三犁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3. 1868년(고종 5) 5월 9일(양력 6월 29일)

華營啓錄 2책(66a~6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3d~413d)

戊辰五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幾盡刈取, 春牟[春甦]麥向黃,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幾盡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이미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4. 1868년(고종 5) 5월 23일(양력 7월 12일)

華營啓錄 2책(67a~6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4b~414c)

戊辰五月二十三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今月二十二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三日卯時至, 所得幾近一掬是如爲白乎旃,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5. 1868년(고종 5) 5월 19일(양력 7월 8일)

華營啓錄 2책(66a~6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4a~414a)

戊辰五月十九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甦]麥刈取, 早稻付種方張,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根耕豆太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무논에 볍씨 뿌리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6. 1868년(고종 5) 5월 29일(양력 7월 18일)

華營啓錄 2책(69a~6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6a~416a)

戊辰五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二十八日亥時量始雨, 一直霪下, 二十九日卯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溢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8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2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7. 1868년(고종 5) 5월 29일(양력 7월 18일)

華營啓錄 2책(69a~6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6a~416a)

戊辰五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已畢, 晚稻乾播, 再除草方張, 移秧初除草方張, 根耕豆太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8. 1868년(고종 5) 5월 30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2책(69b~6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6b~416b)

戊辰五月三十日

今月二十九日卯時至, 得雨六寸六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伊後或霏灑或止歇, 三十日申時至, 所得更爲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九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9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6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그치다가 30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09. 1868년(고종 5) 6월 4일(양력 7월 23일)

華營啓錄 2책(70a~7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6d~416d)

戊辰六月初四日

去月三十日申時至, 得雨一寸九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伊後連日霏灑, 有時止歇, 今月初四日卯時至, 所得復爲四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四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30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1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어느 때는 그치다가 이번 달 초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다시 4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4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0. 1868년(고종 5) 6월 6일(양력 7월 25일)

華營啓錄 2책(70b~7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6d~417a)

戊辰六月初六日

今月初四日卯時至, 得雨四寸三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伊後連爲霏灑, 初六日卯時至, 所得又爲四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四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4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4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1. 1868년(고종 5) 6월 8일(양력 7월 27일)

華營啓錄 2책(70b~70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417a~417a)

戊辰六月初八日

今月初六日卯時至, 得雨四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伊後霏灑, 初七日戌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川渠漲溢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六寸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6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4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7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하며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치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2. 1868년(고종 5) 6월 9일(양력 7월 28일)

華營啓錄 2책(70b~7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7a~417a)

戊辰六月初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三除草方張, 晚稻乾播, 再除草了畢, 移秧再除草方始, 根耕豆太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3. 1868년(고종 5) 6월 12일(양력 7월 31일)

華營啓錄 2책(71a~7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7a~417b)

戊辰六月十二日

今月初七日戌時至, 得雨六寸八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伊後載陰載陽是如可, 初十日寅時量, 更爲霏灑, 十一日亥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五寸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 술시까지 내린 비가 6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10일 인시쯤에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1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1려를 따질 수 없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5치 7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4. 1868년(고종 5) 6월 15일(양력 8월 3일)

華營啓錄 2책(71a~7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7b~417b)

戊辰六月十五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今月十四日戌時量始雨, 或霪或灑, 十五日未時至, 所得爲二犁是如爲白乎旃,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2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5. 1868년(고종 5) 6월 19일(양력 8월 7일)

華營啓錄 2책(71b~71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2책(417b~417c)

戊辰六月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胚胎, 晚稻乾播, 三除草方始, 移秧再除草方張, 根耕豆太, 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6. 1868년(고종 5) 6월 29일(양력 8월 17일)

華營啓錄 2책(72b~7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8a~418a)

戊辰六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 三除草方張, 移秧再除草了畢, 根耕豆太, 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늦벼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7. 1868년(고종 5) 7월 2일(양력 8월 19일)

華營啓錄 2책(73a~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8b~418b)

戊辰七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鄭基命牒呈, 則去月二十九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辰時至, 所得爲三掣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29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8. 1868년(고종 5) 7월 10일(양력 8월 27일)

華營啓錄 2책(73b~7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8c~418c)

戊辰七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向黃, 晚稻乾播, 次第胚胎, 移秧已盡三除草, 根耕豆太, 鋤役亦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정기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히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차례로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도 또한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19. 1868년(고종 5) 7월 20일(양력 9월 6일)

華營啓錄 2책(74a~7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2책(418d~418d)

戊辰七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尹喜秀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刈取, 晚稻乾播發穗, 移秧胚胎, 根耕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윤희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이 뻗고 보내기한 것은 이삭을 배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0. 1875년(고종 12) 2월 16일(양력 3월 23일)

華營啓錄 1책(6b~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2a~432a)

乙亥二月十六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趙義贊牒呈, 則今月十四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至, 所得爲一鋤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1. 1875년(고종 12) 2월 29일(양력 4월 5일)

華營啓錄 1책(8a~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2d~432d)

乙亥二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李熙藻牒呈, 則今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이희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2. 1875년(고종 12) 3월 19일(양력 4월 24일)

華營啓錄 1책(12a~1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미수록~미수록)

乙亥三月十九日

即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十八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3. 1875년(고종 12) 3월 21일(양력 4월 26일)

華營啓錄 1책(12a~1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5a~435a)

乙亥三月二十一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向茂, 春牟麥向青, 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4. 1875년(고종 12) 4월 3일(양력 5월 7일)

華營啓錄 1책(15a~15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3책(436b~436c)

乙亥四月初三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初二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未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5. 1875년(고종 12) 4월 2일(양력 5월 6일)

華營啓錄 1책(15a~1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6b~436b)

乙亥四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茁長, 春牟麥向茂, 鍤役已盡了畢, 早稻付種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김매기는 이미 다 마쳤고, 올벼는 무논에 범씨 뿌리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6. 1875년(고종 12) 4월 9일(양력 5월 13일)

華營啓錄 1책(15a~1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6c~436c)

乙亥四月初九日

即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初八日巳時量始雨, 連爲霏灑, 當日午時至, 所得爲三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일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7. 1875년(고종 12) 4월 12일(양력 5월 16일)

華營啓錄 1책(15b~1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6d~436d)

乙亥四月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間間發穗, 春牟麥茁長, 早稻付種立苗, 注秧及晚稻, 乾播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8. 1875년(고종 12) 4월 25일(양력 5월 29일)

華營啓錄 1책(18a~18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3책(438b~438b)

乙亥四月二十五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二十三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四日酉時至, 所得爲四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29. 1875년(고종 12) 4월 22일(양력 5월 26일)

華營啓錄 1책(18a~1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8b~438b)

乙亥四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已盡發穗, 春牟麥胚胎, 早稻付種向青, 注秧及晚稻, 乾播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은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푸르러지고,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린 것 및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0. 1875년(고종 12) 5월 9일(양력 6월 12일)

華營啓錄 1책(19a~1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8d~438d)

乙亥五月初九日

即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初八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未時至, 所得幾近四犁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4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1. 1875년(고종 12) 5월 12일(양력 6월 15일)

華營啓錄 1책(19b~19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39a~439a)

乙亥五月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向黃, 春牟麥已盡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晚稻乾播, 初除草方始,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은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됐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2. 1875년(고종 12) 5월 14일(양력 6월 17일)

華營啓錄 1책(19b~1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9a~439a)

乙亥五月十四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十三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午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3. 1875년(고종 12) 5월 12일(양력 6월 15일)

華營啓錄 1책(19b~19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39a~439a)

乙亥五月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向黃, 春牟麥已盡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晚稻乾播, 初除草方始,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4. 1875년(고종 12) 5월 22일(양력 6월 25일)

華營啓錄 1책(21a~2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9d~439d)

乙亥五月二十二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二十二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辰時至, 所得爲一鋤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5. 1875년(고종 12) 5월 25일(양력 6월 28일)

華營啓錄 1책(20b~2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39b~439c)

乙亥五月二十五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麥刈取, 春牟麥入實, 早稻付種, 初除草了畢, 晚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6. 1875년(고종 12) 5월 29일(양력 7월 2일)

華營啓錄 1책(21b~2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0a~440b)

乙亥五月二十九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二十七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申時至, 所得爲七犁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七寸一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7려정도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7치 1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7. 1875년(고종 12) 6월 2일(양력 7월 4일)

華營啓錄 1책(22a~2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0b~440c)

乙亥六月初二日

去月二十八日申時至, 得雨七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卯時至, 所得爲五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五寸二分是白乎所, 川渠漲滿, 汚下之地, 不無傷稼之慮, 而油雲愈密, 霽意猶邈, 言念穡事, 誠爲悶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달 28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7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혹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5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5치 2푼이었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낮은 지역은 벼가 손상될 염려가 없지 않고, 구름 일어 더욱 짙어지고, 비 개일 조짐은 더욱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8. 1875년(고종 12) 6월 3일(양력 7월 5일)

華營啓錄 1책(22a~22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40c~440c)

乙亥六月初三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已盡刈取, 春牟麥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移秧幾盡了畢, 豆太根耕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는 거의 다 마쳤고, 콩·팥은그루갈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39. 1875년(고종 12) 6월 15일(양력 7월 17일)

華營啓錄 1책(22b~2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0d~440d)

乙亥六月十五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十三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卯時至, 所得爲一掬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0. 1875년(고종 12) 6월 13일(양력 7월 15일)

華營啓錄 1책(22a~2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0c~440c)

乙亥六月十三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方張, 晚稻乾播, 再除草方始, 移秧了畢, 豆太根耕, 幾盡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두벌 김매기
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는 다 마쳤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1. 1875년(고종 12) 6월 19일(양력 7월 21일)

華營啓錄 1책(23a~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1a~441b)

乙亥六月十九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十八日卯時量始雨, 或霪或灑, 同日申時至, 所得爲三掣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2. 1875년(고종 12) 6월 23일(양력 7월 25일)

華營啓錄 1책(23b~2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1b~441b)

乙亥六月二十三日

即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二十二日子時量始雨, 連爲霖下, 同日申時至, 所得爲九犁餘是乎所, 近尺之雨暴注, 一日之內, 川渠大漲, 田畝各穀, 多有受傷之慮, 言念穡事, 誠爲悶然, 而境內農形段, 早稻付種, 再除草了畢, 晚稻乾播, 再除草方張, 移秧初除草方始, 豆太根耕了畢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9려 정도이었고, 1자 가까운 비가 세차게 쏟아져 하루만에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 논밭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을 염려가 많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3. 1875년(고종 12) 7월 20일(양력 8월 20일)

華營啓錄 1책(25a~2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2a~442a)

乙亥七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趙義贊牒呈, 則今月十八日子時量始雨, 連爲霏灑, 十九日亥時至, 所得爲九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九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9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9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4. 1875년(고종 12) 7월 14일(양력 8월 14일)

華營啓錄 1책(24b~2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1d~442a)

乙亥七月十四日

即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 三除草方始, 移秧初除草了畢, 根耕豆太, 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됐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
고, 모내기한 것은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5. 1875년(고종 12) 7월 21일(양력 8월 21일)

華營啓錄 1책(25a~2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2b~442b)

乙亥七月二十一日

今月十九日亥時至, 得雨九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趙義贊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卯時至, 所得又爲二犁餘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해시까지 내린 비가 9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또 2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6. 1875년(고종 12) 7월 24일(양력 8월 24일)

華營啓錄 1책(25b~2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2b~442b)

乙亥七月二十四日

即接本府判官兼任中軍趙義贊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向黃, 晚稻乾播胚胎, 移秧再除草方張, 根耕豆太, 鋤役了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7. 1875년(고종 12) 7월 25일(양력 8월 25일)

華營啓錄 1책(25b~2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2c~442c)

乙亥七月二十五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趙義贊牒呈, 則今月二十二日申時量始雨, 或霪或灑, 二十四日亥時至, 所得幾近五犁, 而營下測雨器, 水深爲四寸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조의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5려이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8. 1875년(고종 12) 7월 28일(양력 8월 28일)

華營啓錄 1책(26a~2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2d~442d)

乙亥七月二十八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二十七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未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旂,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49. 1875년(고종 12) 8월 4일(양력 9월 3일)

華營啓錄 1책(27b~2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3b~443c)

乙亥八月初四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方張刈取, 晚稻乾播發穗, 移秧再除草了畢, 根耕豆太起花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이 됐고, 모내기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0. 1875년(고종 12) 9월 5일(양력 10월 3일)

華營啓錄 1책(30a~30a)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44d~444d)

乙亥九月初五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境內農形, 晚稻乾播, 幾盡刈取, 移秧及根耕豆太向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모내기한 것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누렇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1. 1875년(고종 12) 9월 11일(양력 10월 9일)

華營啓錄 1책(30a~3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44d~444d)

乙亥九月十一日

卽接本府判官金蘊淳牒呈, 則今月十一日曉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김온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2. 1876년(고종 13) 3월 1일(양력 3월 26일)

華營啓錄 1책(60a~60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3책(461a~461a)

丙子三月初一日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今月初一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申時至, 所得幾近一犁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八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3. 1876년(고종 13) 3월 10일(양력 4월 4일)

華營啓錄 1책(60b~60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61b~461b)

丙子三月初十日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境內春牟[春甦]麥, 今已畢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지금 이미 밭갈이를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4. 1876년(고종 13) 3월 20일(양력 4월 14일)

華營啓錄 1책(62a~62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3책(462a~462a)

丙子三月二十日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靑, 春牟[春麴]麥立苗, 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싹이 돋고 김매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5. 1876년(고종 13) 4월 2일(양력 4월 25일)

華營啓錄 1책(62b~62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62b~462b)

丙子四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今月初二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未時至, 所得爲一犁是如爲白乎脉,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6. 1876년(고종 13) 4월 1일(양력 4월 24일)

華營啓錄 1책(62b~62b) /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2a~462b)

丙子四月初一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向茂, 春牟[春甦]麥向青, 鍾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7. 1876년(고종 13) 4월 11일(양력 5월 4일)

華營啓錄 1책(63a~6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2b~462c)

丙子四月十一日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茁長, 春牟[春甦]麥向茂, 鍤役幾盡了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김매기는 거의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0858. 1876년(고종 13) 4월 17일(양력 5월 10일)

華營啓錄 1책(63a~6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2c~462c)

丙子四月十七日

本府農形, 概陳於日次狀聞中是白在果, 跨朔亢旱, 時雨尙闕, 言念農功, 誠極渴悶, 以若時急民情, 有不可遲待夏至, 故祈雨祭不卜日, 以今十九日虔誠設行之意, 發甘申飭於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일정 보고문서에 개요를 아뢰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오랜 가뭄이고 때맞춰 비가 아직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같이 시급한 백성들의 심정상 하지까지 지체하며 기다릴 수 없으므로 기우제는 하루빨리 이번 19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에게 문서를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59. 1876년(고종 13) 4월 19일(양력 5월 12일)

華營啓錄 1책(63b~6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2d~462d)

丙子四月十九日

本府祈雨祭, 以今十九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再次祈雨祭, 間二日以今二十二日, 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를 이번 19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22일에 지역 내 팔달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0. 1876년(고종 13) 4월 21일(양력 5월 14일)

華營啓錄 1책(64a~64a) /各司膳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膳錄 3책(462d~463a)

丙子四月二十一日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胚胎, 春牟[春麴]麥茁長, 鍤役了畢, 早稻付種方始, 注秧及晚稻, 乾播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김매기를 다 마쳤고, 올벼는 무논에 볍씨 뿌리기를 시작하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1. 1876년(고종 13) 4월 22일(양력 5월 15일)

華營啓錄 1책(64a~64b) /各司騰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騰錄 3책(463a~463b)

丙子四月二十二日

本府再次祈雨祭, 以今二十二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八達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旅, 三次祈雨祭, 間二日以今二十五日, 設行於府內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2차 기우제를 이번 22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팔달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25일 지역 내 광교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2. 1876년(고종 13) 4월 25일(양력 5월 18일)

華營啓錄 1책(64b~6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3b~463c)

丙子四月二十五日

本府三次祈雨祭, 以今二十五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光教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旂, 續接其所報, 則今月二十四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卯時至, 所得幾近二犁是如爲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七分是白乎所, 渴望之餘, 甘澍伊始,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油雲密布, 連爲霏灑, 四次祈雨祭, 姑爲觀勢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3차 기우제는 이번 25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광교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계속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구름이 몰려 뽕뽕하게 퍼지고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니 4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3. 1876년(고종 13) 4월 28일(양력 5월 21일)

華營啓錄 1책(65a~6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3c~463d)

丙子四月二十八日

本府四次祈雨祭, 觀勢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寸餘之雨, 猶未浹洽, 累日旋曝, 民情可悶是白乎等以, 四次祈雨祭, 仍使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 當日虔誠設行於府內龍淵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跡, 五次祈雨祭, 間二日以來月初二日, 設行於府內祝萬堤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4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한다는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비가 내렸으나 치 정도로 흡족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고민이 심하여 4차 기우제는 이내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에게 당일 지역 내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게 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는 2일 건너 다음 달 초2일에 지역 내 축만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4. 1876년(고종 13) 5월 2일(양력 5월 24일)

華營啓錄 1책(65b~6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3d~464a)

丙子五月初二日

本府五次祈雨祭, 以今初二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祝萬堤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脉, 六次祈雨祭, 間二日以今初五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5차 기우제를 이번 초2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축만제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6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초5일에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5. 1876년(고종 13) 5월 2일(양력 5월 24일)

華營啓錄 1책(66a~66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4a~464a)

丙子五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甦]麥發穗, 春牟[春甦]麥胚胎, 早稻付種立苗, 注秧及晚稻, 乾播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이삭을 배고 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싹이 돋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6. 1876년(고종 13) 5월 5일(양력 5월 27일)

華營啓錄 1책(66b~6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4b~464c)

丙子五月初五日

本府六次祈雨祭, 以今初五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本府判官閔斗鎬, 以顯隆園端午祭享典祀官相值, 不得舉行乙仍于, 使迎華道察訪金勉孺, 虔誠設行於府內城神祠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七次祈雨祭, 間二日以今初八日, 設行於府內社稷壇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6차 기우제를 이번 초5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가 현릉원 단오제 향전사관과 상치되어 거행할 수 없어 영화도찰방 김면유에게 지역 내 성신사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게 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7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초8일 본 지역 내 사직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7. 1876년(고종 13) 5월 8일(양력 5월 30일)

華營啓錄 1책(67a~6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4c~464d)

本府七次祈雨祭，以今初八日設行計料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則當日虔誠設行於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祭官職·姓名，開錄于左爲白乎旆，八次祈雨祭，間二日以今十一日，設行於府內龍淵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7차 기우제를 이번 초8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8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11일에 지역 내 용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8. 1876년(고종 13) 5월 11일(양력 6월 2일)

華營啓錄 1책(67b~6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4d~465a)

本府八次祈雨祭, 以今十一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龍淵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九次祈雨祭, 間二日以今十四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8차 기우제를 이번 11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지역 내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9차 기우제는 2일 건너 이번 14일에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69. 1876년(고종 13) 5월 11일(양력 6월 2일)

華營啓錄 1책(68a~6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a~465b)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今月十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未時至, 所得幾近三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七分是白乎所, 渴悶之餘, 甘澍伊始, 繼此周洽, 方切顒望,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3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매우 걱정 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계속 두루 흠족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0. 1876년(고종 13) 5월 12일(양력 6월 3일)

華營啓錄 1책(68b~6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b~465b)

今月十一日未時至, 得雨二寸七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伊後連爲霏灑, 十二日寅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二分, 通計前後, 合爲三寸九分是白乎所, 渴望之餘, 甘澍稍洽, 言念民事, 誠爲萬幸. 九次祈雨祭, 姑爲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 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3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내리 것이 녀1려 정도이었습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2푼이었고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총 3치 9푼이었습니다. 매우 바라던 끝에 단비가 내려 조금 흡족해졌고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9차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1. 1876년(고종 13) 5월 12일(양력 6월 3일)

華營啓錄 1책(68b~6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b~465b)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入實, 春牟[春麴]麥發穗, 早稻付種向青, 注秧及晚稻乾播, 間間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삭이 났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푸르러지고, 늦벼는 못자리 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간간이 짝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2. 1876년(고종 13) 5월 22일(양력 6월 13일)

華營啓錄 1책(69a~6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d~465d)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向黃, 春牟[春麴]麥入實, 早稻付種, 初除草方始, 注秧及晚稻乾播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늦벼는 못자리에 불린 볍씨 뿌리기 및 마른 논에 볍씨 뿌리기를 푸르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3. 1876년(고종 13) 윤5월 2일(양력 6월 23일)

華營啓錄 1책(69b~6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d~465d)

丙子閏五月初二日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境內農形, 秋牟[秋麴]麥刈取, 春牟[春麴]麥向黃,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晚稻乾播, 初除草方始, 移秧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는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4. 1876년(고종 13) 윤5월 2일(양력 6월 23일)

華營啓錄 1책(69b~7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5d~466a)

本府農形, 概陳於狀聞中是白在果, 月前雨澤, 稍慰民情之渴悶, 而伊後仍爲亢旱, 夏至已過. 秧節漸愆, 目下民事, 尤切遑汲. 故祈雨祭, 不卜日以今初四日, 更爲虔誠設行之意, 發甘申飭於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의 농사 상황은 보고문서에 개요를 아뢰었습니다. 1달 전 우택으로 매우 걱정하던 백성들의 심정에 위로가 되었으나 그 후 이내 오래 가물었고 하지는 이미 지나고 모내기 철이 점점 지체되어 현재 백성들의 사정은 더욱 매우 황급합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는 하루 빨리 이번 4일에 다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에게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5. 1876년(고종 13) 윤5월 4일(양력 6월 25일)

華營啓錄 1책(70a~7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6a~466b)

本府祈雨祭，以今初四日設行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則當日虔誠設行於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祭官職·姓名，開錄于左爲白乎旆，再次祈雨祭，間二日以今初七日，設行於府內龍淵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를 이번 초4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초7일에 지역 내 용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6. 1876년(고종 13) 윤5월 7일(양력 6월 28일)

華營啓錄 1책(70b~7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6b~466c)

本府再次祈雨祭, 以今初七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龍淵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三次祈雨祭, 間二日以今初十日, 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2차 기우제를 이번 초7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초10일에 지역 내 팔달산에세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7. 1876년(고종 13) 윤5월 10일(양력 7월 1일)

華營啓錄 1책(71a~7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6c~466d)

本府三次祈雨祭, 以今初十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八達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秧節漸晚, 霈施尙靳, 民事遑汲, 日甚一日, 故四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二日, 設行於府內祝萬堤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3차 기우제를 이번 초10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팔달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고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황급하고 하루하루 심해지므로 4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2일에 지역 내 축만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8. 1876년(고종 13) 윤5월 12일(양력 7월 3일)

華營啓錄 1책(71a~7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6d~467a)

本府四次祈雨祭, 以今十二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祝萬堤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五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四日, 設行於府內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4차 기우제를 이번 12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축만제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4일에 지역 내 광고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79. 1876년(고종 13) 윤5월 12일(양력 7월 3일)

華營啓錄 1책(71b~7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7a~467a)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顔牒呈, 則境內農形, 春牟[春耨]麥刈取, 早稻付種, 初除草了畢, 晚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因嘆乾中止, 豆太根耕方始是如爲白有臥乎所, 圭璧屢薦, 靈應斯邈,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는 가뭄으로 중지하이었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0. 1876년(고종 13) 윤5월 14일(양력 7월 5일)

華營啓錄 1책(72a~7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7a~467b)

本府五次祈雨祭, 以今十四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光教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六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六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5차 기우제는 이번 14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광고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우제 시행은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6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6일에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1. 1876년(고종 13) 윤5월 16일(양력 7월 7일)

華營啓錄 1책(72b~73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7b~467c)

本府六次祈雨祭, 以今十六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城神祠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七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八日, 設行於府內社稷壇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6차 기우제를 이번 16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시행한 기우제는 본 지역 내 성신사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7차 기우제는 이번 18일에 지역 내 사직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2. 1876년(고종 13) 윤5월 18일(양력 7월 9일)

華營啓錄 1책(73a~7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7c~467d)

本府七次祈雨祭, 以今十八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社稷壇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八次祈雨祭, 間一日以今二十日, 設行於府內龍淵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7차 기우제는 이번 18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지역 내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작·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8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20일에 지역 내 용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3. 1876년(고종 13) 윤5월 20일(양력 7월 11일)

華營啓錄 1책(73b~73b) /各司謄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謄錄 3책(467d~468a)

本府八次祈雨祭，以今二十日設行計料之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龍淵後，祭官職·姓名，開錄于左爲白乎旆，九次祈雨祭，間一日以今二十二日，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8차 기우제를 이번 20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시행한 기우제는 본 지역 내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9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22일에 본 지역 내 팔달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4. 1876년(고종 13) 윤5월 22일(양력 7월 13일)

華營啓錄 1책(74a~7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8a~468b)

本府九次祈雨祭, 以今二十二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八達山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玆, 十次祈雨祭, 間一日以今二十四日, 設行於府內祝萬堤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9차 기우제를 이번 22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지역 내 팔달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작·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10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24일에 지역 내 축만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5. 1876년(고종 13) 윤5월 22일(양력 7월 13일)

華營啓錄 1책(74b~74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8b~468b)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顔牒呈, 則今月二十一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至, 所得爲一犁餘, 而境內農形段,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晚稻乾播, 初除草了畢, 移秧仍爲中止, 豆太根耕方張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是白乎所, 渴悶之餘, 甘澍伊始, 繼此霽然, 方切顙祝,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이었습니다.

지역 내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모내기는 이내 중지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한창이라고 합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매우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계속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간절이 빕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6. 1876년(고종 13) 윤5월 24일(양력 7월 15일)

華營啓錄 1책(74b~7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8b~468c)

本府十次祈雨祭, 以今二十四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祝萬堤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跡, 十一次祈雨祭, 間一日以今二十六日, 設行於府內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10차 기우제를 이번 24일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본 지역 내 축만제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11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26일에 지역 내 광교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7. 1876년(고종 13) 윤5월 25일(양력 7월 16일)

華營啓錄 1책(75a~75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8c~468d)

今月二十一日酉時至, 得雨一寸一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伊後載陰載陽是如可, 二十四日巳時量, 更爲霏灑, 同日酉時至, 所得爲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是白乎所, 前後所得, 猶未周洽, 目下民情, 日蓋渴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유시까지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4일 사시쯤에 다시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이었다고 합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이었고 지금까지 내린 것이 아직 두루 흡족하지 않고 현재 백성의 심정이 날마다 대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8. 1876년(고종 13) 윤5월 26일(양력 7월 17일)

華營啓錄 1책(75a~75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8d~469a)

本府十一次祈雨祭, 以今二十六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虔誠設行於府內光教山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十二次祈雨祭, 間一日以今二十八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11차 기우제를 이번 26일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당일 지역 내 광고산에서 기우제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12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28일에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89. 1876년(고종 13) 윤5월 28일(양력 7월 19일)

華營啓錄 1책(76a~76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9b~469c)

本府十二次祈雨祭, 以今二十八日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以本府中軍李奎顏差定獻官, 當日虔誠設行於府內城神祠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玆, 禮典所載十二次之限, 今已準滿, 則不敢擅自越禮, 祈雨祭今姑停止,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12차 기우제를 이번 28일에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이 헌관에 선정되어 당일 지역 내 성신사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한 후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전에 기재된 12차를 끝으로 지금 이미 기준에 찻으니 감히 함부로 의례를 넘을 수 없으니 기우제는 지금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0. 1876년(고종 13) 6월 3일(양력 7월 23일)

華營啓錄 1책(76b~7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9c~469c)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胚胎, 晚稻乾播, 再除草了畢, 移秧仍爲中止, 根耕豆太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을 배고 있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재벌 김매기를
마쳤고, 모내기는 이내 중지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1. 1876년(고종 13) 6월 5일(양력 7월 25일)

華營啓錄 1책(77a~77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69c~469d)

本府祈雨祭, 十二次設行後, 不敢踰越於禮典所載, 姑爲停止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伊後亢旱, 一直如此, 民情穡事, 十分渴急, 故祈雨祭不卜日, 以今初七日更爲虔誠設行之意, 發甘申飭於本府判官閔斗鎬處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는 12차를 시행한 후 감히 예전에 기재한 보다 넘지 못해 일단 중지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가뭄이 줄곧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에 충분히 매우 다급하므로 기우제는 하루빨리 이번 초7일에 다시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에게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2. 1876년(고종 13) 6월 7일(양력 7월 27일)

華營啓錄 1책(77b~77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0a~470a)

本府祈雨祭, 以今初七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再次祈雨祭, 間一日以今初九日, 設行於府內龍淵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기우제를 이번 초7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초9일에 본 지역 내 용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3. 1876년(고종 13) 6월 9일(양력 7월 29일)

華營啓錄 1책(78a~78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0a~470b)

本府再次祈雨祭, 以今初九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龍淵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三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一日, 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2차 기우제를 이번 초9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용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1일에 본 지역 내 팔달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4. 1876년(고종 13) 6월 11일(양력 7월 31일)

華營啓錄 1책(78a~78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0b~470c)

本府三次祈雨祭, 以今十一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八達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四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三日, 設行於府內祝萬堤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3차 기우제를 이번 11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관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팔달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4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3일에 본 지역 내 축만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5. 1876년(고종 13) 6월 13일(양력 8월 2일)

華營啓錄 1책(78b~79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0c~470d)

本府四次祈雨祭, 以今十三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祝萬堤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五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五日, 設行於府內光教山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4차 기우제를 이번 13일에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축만제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5차 기우제는 하루건너 이번 15일에 지역 내 광교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6. 1876년(고종 13) 6월 13일(양력 8월 2일)

華營啓錄 1책(79a~79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0d~471a)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間間發穗, 晚稻乾播, 三除草方始, 移秧停癢, 根耕豆太高燥處, 鋤役中止, 而見今三庚已迫, 一直亢旱, 無論高低畓, 舉皆龜坼, 移挿無路, 且以田穀言之, 原野焦枯, 豆太間多萎黃, 言念穡事, 萬萬憂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고, 모내기를 중지하고 높고 메마른 곳에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중지하였는데, 현재 삼경이 이미 닳쳤고 줄곧 가물고 높고 낮은 논을 따질 것 없이 대부분 거북등 갈라지듯 갈라졌고 옮겨 심을 길이 없습니다. 또 밭의 곡식으로 말하자면, 벌판은 말라가고 콩·팥은 그사이 누렇게 시든 것이 많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7. 1876년(고종 13) 6월 15일(양력 8월 4일)

華營啓錄 1책(79b~80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1a~471b)

本府五次祈雨祭, 以今十五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顔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光教山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六次祈雨祭, 間一日以今十七日, 設行於府內城神祠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5차 기우제를 이번 15일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광고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차 기우제는 하루 사이를 두어 이번 17일에 본 지역 내 성신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8. 1876년(고종 13) 6월 17일(양력 8월 6일)

華營啓錄 1책(80a~80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1b~471c)

本府六次祈雨祭, 以今十七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城神祠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續接其所報, 則今月十六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十七日卯時至, 所得幾近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所, 渴悶之餘, 甘澍伊始, 油雲四低, 雨意尙濃, 七次祈雨祭, 姑爲觀勢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6차 기우제를 이번 17일에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본 지역 내 성신사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으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계속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2려 정도이었고 저의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매우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사방으로 구름이 일어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짙어 7차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899. 1876년(고종 13) 6월 19일(양력 8월 8일)

華營啓錄 1책(80b~81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1c~471d)

今月十七日卯時至, 得雨爲一寸六分, 而七次祈雨祭觀勢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伊後載陰載陽, 終靳繼霈, 故祈雨祭, 間一日以今十九日, 仍爲設行之意, 知委於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處矣. 卽接其所報, 則當日虔誠設行於府內社稷壇是如爲白有等以, 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旆, 續接其所報, 則今月十八日申時量始雨, 連爲霏灑, 十九日卯時至, 所得爲三犁餘是如是白遣,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四分是白乎所, 前後所得, 合爲五寸, 闔境今旣周洽, 故祈雨祭仍爲停止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1치 6푼이었고, 7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하겠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결국 계속 주룩주룩 쏟아지지 않았으므로 기우제는 하루 건너 이번 19일에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를 접수해보니, 당일 지역 내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제관의 관직·성명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계속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이었고,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고, 지금까지 내린 것이 총 5치이었습니다. 온 지역에 이미 두루 흠족하게 내렸으므로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0. 1876년(고종 13) 6월 20일(양력 8월 9일)

華營啓錄 1책(81a~8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1d~472a)

今月十九日卯時至, 得雨三寸四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伊後連爲霏灑, 當日午時至, 所得爲四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四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3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4려 정도이었다고 합니다.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4치 5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1. 1876년(고종 13) 6월 23(양력 8월 12일)

華營啓錄 1책(81b~8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2a~472b)

今月二十日午時至, 得雨四寸五分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伊後或霏或灑, 二十一日酉時至, 所得爲一犁餘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又爲一寸五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오시까지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 정도라고 합니다.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2. 1876년(고종 13) 6월 23(양력 8월 12일)

華營啓錄 1책(81b~81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2a~472a)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金勉孺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發穗, 晚稻乾播, 三除草方張, 移秧停廢處, 間或移插, 而立秋已過, 難保其成實, 根耕豆太, 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겸임 영화도찰방 김면유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났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모내기를 중지한 곳은 간혹 옮겨 심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3. 1876년(고종 13) 6월 28일(양력 8월 17일)

華營啓錄 1책(82a~82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2c~472c)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今月二十六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辰時至, 所得幾近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거의 1려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유명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4. 1876년(고종 13) 7월 4일(양력 8월 22일)

華營啓錄 1책(82b~82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2c~472d)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入實, 晚稻乾播, 三除草了畢, 晚秧今始着根, 根耕豆太, 鋤役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

방금 본 수원부 판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알이 들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지금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5. 1876년(고종 13) 7월 21일(양력 9월 8일)

華營啓錄 1책(84a~84a)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3c~473c)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奎顏牒呈, 則今月二十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當日辰時至, 所得
幾近三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二寸六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판관 겸임 중군 이규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이 거의 3려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연유
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6. 1876년(고종 13) 7월 14일(양력 9월 1일)

華營啓錄 1책(83a~83b) /各司臚錄 5책, 水原府留營狀啓臚錄 3책(473a~473b)

卽接本府判官閔斗鎬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向黃, 晚稻乾播胚胎, 晚移初除草方張, 根耕豆太, 鋤役了畢, 而此乃從其若干有水根最膏沃處而論也. 若以舉一境言之, 則南部等水上十三面, 得雨雖晚, 土脈稍厚. 故或因杙插而移種, 或有代播而耕墾, 而旋值曝乾, 舉皆向萎, 始於六月望後之雨, 田畝各穀之已立苗者, 稍稍蘇醒, 庶有多少食實之望, 而初不付種處, 亦甚夥多, 未免穴農是乎旃, 至於楊澗等水下二十六面, 濱海斥鹵, 引水無處, 雨澤不均, 移秧一事, 初不舉論者, 十居八九, 或有代播, 因其亢旱而亦不立苗, 竝與田種而亦然是如爲白有臥乎所, 統論境內, 今年穡事之無望有秋, 從以可判,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수원부 관관 민두호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역 내 농사 상황은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누렇게 익어가고,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린 늦벼는 이삭을 배고있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초벌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김매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정도 수원이 있고 가장 비옥한 곳을 따라서 논한 것입니다. 온 지역을 들어 말하자면, 남부 등 물 위 13개 면은 비가 내린 것이 비록 늦었지만 토양이 조금 두터우므로 더러 말뚝을 꽂고 옮겨 심거나 더러 대신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아 개간하는데 이내 별이 내려져어 말라 대부분 시들었고 비로소 6월 보름에 비가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미 싹이 튼 것은 조금씩 되살아났고 거의 어느정도 열매를 먹을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무논에 볍씨를 뿌린지 않은 곳도 또한 매우 상당히 많아 구메농사를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간 등 물 아래 26개 면의 경우, 소금기 저런 바닷가로 물을 끌어 댈 곳이 없고 우택도 고르지 않아 모내기 한가지 일은 애당초 거론하지 않은 것이 열에 여덟 아홉이고 더러 대신 씨앗을 뿌렸지만 가뭄으로 인해 또한 싹이 돋지 않았고, 밭에 씨앗을 뿌린 것도 또한 그러하다고 합니다. 수원 부내를 통틀어 논하자면 올해 농사는 수확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관가름 났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말하면 정말이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7. 1861년(철종 12) 2월 29일(양력 4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5b~3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5a~295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本月二十八日卯時量始雨，或灑或霏。二十九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8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8. 1861년(철종 12) 3월 10일(양력 4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6a~3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5b~295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兼任大興中軍李龍會牒報, 則秋麴已盡向青, 春麴間或立苗, 早粟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겸임 대흥 중군 이용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09. 1861년(철종 12) 3월 17일(양력 4월 2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6a~3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5b~295c)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在果，卽接經歷兼任大興中軍李龍會牒報，則本月十五日辰時量始雨，或灑或霏，十六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겸임 대흥 중군 이용회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0. 1861년(철종 12) 3월 27일(양력 5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6b~3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5c~295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晷牒報, 則本月二十五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六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1. 1861년(철종 12) 4월 4일(양력 5월 1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7b~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6b~296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本月初二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三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3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2. 1861년(철종 12) 4월 10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7b~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6b~296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秋麴間或發穗, 春麴·小麥, 已盡向茂,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立苗. 晚稻·晚粟與豆太, 今方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밀은 이미 다 무성해졌고, 올벼·올조 및 수수·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3. 1861년(철종 12) 4월 10일, 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7b~3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6c~296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謨牒報, 則本月初十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0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4. 1861년(철종 12) 5월 11일(양력 6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9a~3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7b~297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秋麴已盡向熟, 春麴·小麥, 次第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 再除草,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初除草. 洞野畚先移之秧, 間或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가고 봄보리·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올벼·올조 및 수수·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일찍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5. 1861년(철종 12) 5월 13일(양력 6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9a~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7b~297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本月十二日辰時量始雨，或灑或霏。十三日巳時至，測雨器水深爲八分，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2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3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6. 1861년(철종 12) 5월 15일(양력 6월 2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9b~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7b~297c)

本月十三日巳時至, 得雨八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三日巳時以後, 或灑或霏. 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사시까지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 사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7. 1861년(철종 12) 5월 19일(양력 6월 2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9b~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7c~297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謨牒報, 則本月十七日亥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八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7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5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8. 1861년(철종 12) 5월 24일(양력 7월 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0a~4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7d~297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晷牒報, 則本月二十一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二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연모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19. 1861년(철종 12) 6월 7일(양력 7월 1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0b~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8b~298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本月初四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五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 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0. 1861년(철종 12) 6월 8일(양력 7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8c~298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晷牒報, 則本月初六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六寸九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수원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 6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9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1. 1861년(철종 12) 6월 11일(양력 7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8c~298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三除草, 晚稻·晚粟與豆·太, 再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間或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일찍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간혹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2. 1861년(철종 12) 6월 20일(양력 7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8c~298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晷牒報, 則本月十九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七寸三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3. 1861년(철종 12) 7월 2일(양력 8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2b~4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9c~29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去月二十九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 而猶未開霽是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豆·太, 今方起花, 晚稻·晚粟, 三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今始胚胎, 晚移之秧, 舉皆向茂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콩·팥은 지금 막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일찍 옮겨 심은 모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거의 모두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4. 1861년(철종 12) 7월 12일(양력 8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3a~4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9c~299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晷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發穗, 木花·豆·太, 今始結穎. 晚稻·晚粟, 方張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지금 꼬투리가 맺기 시작했고, 늦벼·늦조는 한창 알을 배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5. 1861년(철종 12) 8월 5일(양력 9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3a~4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299d~300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本月初三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四日巳時,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렸는데, 초4일 사시에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6. 1861년(철종 12) 8월 12일(양력 9월 1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4a~4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0b~300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韓鼎蕃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刈取, 木花爛漫摘取, 豆·太, 幾盡成實. 晚稻·晚粟, 舉皆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한정기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베어 거두었고 목화는 (숨이) 활짝 숨이 터져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거의 열매가 영글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모두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7. 1861년(철종 12) 9월 25일(양력 10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6a~4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1c~301d)

本府合屬豐德農形, 較諸他面, 頗有受損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惟此豐德一境, 土本斥鹵, 又多乾播, 夏潦頗仍, 鋤役失時, 秋霜早降, 各穀無實, 迨此收穫, 大違所料. 其在奠安之道, 合有恤隱之政是白乎所, 舊豐德民所受禁·御兩營, 江都留餉米太之原穀與耗條, 詳定代捧, 摠戎廳所管臨津餉還之原穀, 則捧留本邑, 耗條則亦以詳定代捧, 輸送各該廳之意, 前已登聞蒙允, 已成年例, 今亦依此舉行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에 합쳐진 풍덕의 농사 상황은 다른 면과 비교하면 자못 손상이 있었다는 연유에 대해선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풍덕 일대는 땅이 본래 소금기로 척박하고 또 대부분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여름 장마가 자못 계속되어 김매기 일은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가을 서리가 일찍 내려 각종 곡식에 알이 없어서 지금에 이르러 수확은 생각과는 크게 어긋나 편안히 살게 하려는 도리상 구휼하는 대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옛 풍덕 백성이 받았던 금위영·어영청 두 군영과 강도 유향미·콩 중 원곡과 모곡은 상정하여 대신 받아들이고, 충융청 관할 임진의 유향미 환곡 중 원곡은 본 고을에 받아두고, 이자는 또한 상정하여 대신 받아서 각 해당 관청에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앞서 이미 아뢰어 임금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이 이미 매년 사례가 되었으니 지금 또한 이대로 거행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8. 1862년(철종 13) 3월 12일(양력 4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b~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8a~308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耨日漸向青, 春耨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29. 1862년(철종 13) 3월 17일(양력 4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4b~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8b~308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金羽東牒報則本月十五日巳時量始雨，或灑或霏。戌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0. 1862년(철종 13) 3월 29일(양력 4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1책(5a~5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1책(308c~309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七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八日巳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8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1. 1862년(철종 13) 4월 6일(양력 5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6a~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9a~309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三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亥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2. 1862년(철종 13) 4월 11일(양력 5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6a~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9b~309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八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九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3. 1862년(철종 13) 4월 12일(양력 5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6b~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9b~309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麴方張胚胎, 春麴·小麴今始向茂, 早稻·早粟間或立苗. 黍稷·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올벼·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4. 1862년(철종 13) 4월 20일(양력 5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6b~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9c~30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十八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九日巳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9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5. 1862년(철종 13) 4월 20일(양력 5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7a~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09c~309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粳間或發穗, 春粳·小麥已盡向茂,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立苗. 晚稻·晚粟與豆·太,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무성해졌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한창 싹이 돋았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6. 1862년(철종 13) 5월 3일(양력 5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8b~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0d~310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間或胚胎, 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茁長. 晚稻·晚粟與豆·太, 方張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모두 이삭이 났으며 봄보리·봄밀은 간혹 알을 배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싹이 자랐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7. 1862년(철종 13) 5월 13일(양력 6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9b~1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1c~311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麴間或入實, 春麴·小麥舉皆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初除草, 晚稻·晚粟與豆·太, 次第向青. 洞野畚今始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하고 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차례로 푸르러졌고, 동네와 들판의 논은 지금 옮겨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8. 1862년(철종 13) 5월 19일(양력 6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a~1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1c~311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十八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巳時至, 測雨器水深, 爲七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39. 1862년(철종 13) 5월 23일(양력 6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a~1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1d~311d)

壬戌五月二十三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麴已盡向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初除草. 洞野畚先移之秧, 間或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임술 5월 23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초벌김매기를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일찍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0. 1862년(철종 13) 5월 24일(양력 6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a~1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1d~311d)

本府農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一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二日巳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七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2일 사시쯤이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1. 1862년(철종 13) 5월 27일(양력 6월 2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b~1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a~312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五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六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八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6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2. 1862년(철종 13) 6월 3일(양력 6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b~1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a~312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已盡向熟,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再除草. 洞野先移之秧, 日漸向青, 晚移之秧, 今方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익어갔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동네와 들판에서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늦게 모내기하는 모는 지금 막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3. 1862년(철종 13) 6월 8일(양력 7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0b~1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b~31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六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所, 亢旱渴望之餘, 得此甘澍.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見今陰雲四塞, 雨意尙多, 猶未開霽是如爲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오래 가물어 애태우며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현재 먹구름이 사방에 가득 차서 비올 조짐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4. 1862년(철종 13) 6월 12일(양력 7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1a~1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b~312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十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申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는데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5. 1862년(철종 13) 6월 13일(양력 7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1a~1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b~312c)

本月初十日申時至, 得雨一寸之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申時以後, 或灑或霏. 十一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 10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신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1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6. 1862년(철종 13) 6월 18일(양력 7월 1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1a~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c~312c)

本府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十三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亥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七分, 而川渠漲溢, 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7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는데 아직도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7. 1862년(철종 13) 6월 21일(양력 7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1b~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c~312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十六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五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8. 1862년(철종 13) 6월 23일(양력 7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1b~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2d~312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四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春粃·小麥幾盡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三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方張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今始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4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49. 1862년(철종 13) 6월 28일(양력 7월 2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2b~1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3c~313c)

本府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五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六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六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6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0. 1862년(철종 13) 7월 3일(양력 7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3b~1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4b~314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豆·太與晚稻·晚粟三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舉皆茁長, 晚移之秧, 日漸向茂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콩·팥과 늦벼·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먼저 옮겨 심은 모는 거의 거의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1. 1862년(철종 13) 7월 3일(양력 7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4a~1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4b~314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一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二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2. 1862년(철종 13) 7월 10일(양력 8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4a~1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4c~314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初六日巳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四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본 개성부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3. 1862년(철종 13) 7월 13일(양력 8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4b~1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4d~314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舉皆胚胎, 木花·豆·太間或起花, 晚稻·晚粟次第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다 알을 배고, 목화·콩·팥은 간혹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차례로 싹이 자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4. 1862년(철종 13) 7월 23일(양력 8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6a~1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5d~316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次第發穗, 木花間或結顆, 豆·太, 方張起花, 晚稻·晚粟, 今始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0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혹 다래가 맺고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늦벼·늦조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5. 1862년(철종 13) 윤8월 4일(양력 8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6b~1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6a~316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舉皆發穗, 木花間或摘取, 豆·太, 次第結穎, 晚稻·晚粟, 今始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이삭이 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6. 1862년(철종 13) 윤8월 20일(양력 9월 1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7b~1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6d~316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十三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今始入實, 木花次第摘取, 豆·太間或成實, 晚稻·晚粟, 方張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목화는 차례로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간혹 알이 영글었고, 늦벼·늦조는 한창 이삭이 뻗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7. 1862년(철종 13) 윤8월 5일(양력 8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8b~1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7c~317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刈取, 豆·太, 次第向熟, 木花爛漫摘取, 晚稻·晚粟幾盡成實是如是白乎所, 大抵今年穡事, 五六月之交, 雨水頻仍, 早播早移之畝, 宜粟宜稷之田, 庶有回蘇登場之望是白加尼, 乃自七月旣<望>後, 晚澇成霖, 東風連吹, 蟲災居多, 痒稼過半. 禾穀之胚胎者, 偏傷於沈墊, 綿穎之結花者, 竟歸於腐落是白如乎, 嗣後暘曝稍調, 霜信差退, 則庶或免歉是白乎矣, 至若舊豐德, 土本斥鹵, 間多海溢, 田畝之受損, 最甚於他各面是白乎旂, 統論各穀優劣, 則豆·太·黍稷粟爲最, 禾穀未免穴農, 木花尤有甚焉. 言念民事, 誠極憂憫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0958. 1862년(철종 13) 윤8월 24일(양력 9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7b~1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6d~317a)

本府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本月二十一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霖. 二十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 而猶未開霽爲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次第入實, 木花, 方張摘取, 豆·太, 幾盡成實, 晚稻·晚粟舉皆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시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거의 다 알이 영글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대부분 이삭이 뻗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59. 1862년(철종 13) 윤8월 5일(양력 9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18b~1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1책(317c~317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羽東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刈取, 豆·太, 次第向熟, 木花爛漫摘取, 晚稻·晚粟幾盡成實是如是白乎所, 大抵今年穡事, 五六月之交, 雨水頻仍, 早播早移之畝, 宜粟宜稷之田, 庶有回蘇登場之望是白加尼, 乃自七月旣<望>後, 晚澇成霖, 東風連吹, 蟲災居多, 痒稼過半. 禾穀之胚胎者, 偏傷於沈墊, 綿穎之結花者, 竟歸於腐落是白如乎, 嗣後暘曝稍調, 霜信差退, 則庶或免歉是白乎矣, 至若舊豐德, 土本斥鹵, 間多海溢, 田畝之受損, 最甚於他各面是白乎旂, 統論各穀優劣, 則豆·太·黍稷粟爲最, 禾穀未免穴農, 木花尤有甚焉. 言念民事, 誠極憂憫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우동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베어 거두었고, 콩·팥은 차례로 익어갔고, 목화는 흐드러져서 따서 거두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다 알이 영글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5, 6월 사이에 빗물이 빈번하여 일찍 씨앗을 뿌리고 일찍 모내기한 논과 조와 기장을 기르기에 적당한 밭은 아마도 다시 되살아나 타작할 가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7월 16일 이후로 늦장마에 비가 이어지고 동풍은 연이어 불고 벌레 재해가 많아서 피해입은 작물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벼 곡식 중 알이 뻗은 것은 물에 잠겨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목화에서 꽃이 맺힌 것은 결국 썩어 떨어졌습니다. 이후 내리쬐는 햇볕이 다소 조화롭고 서리 소식도 조금 물러서니 아마도 더러 흉년에서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옛 풍덕의 경우, 땅은 본래 소금기가 많아 척박했고 그 사이 해일도 많아 피해를 입은 논밭은 다른 각 면에 비해 가장 심했습니다. 통틀어 따지건대 각종 곡식의 우열의 경우, 콩·팥·조·기장이 가장 좋고, 벼 곡식은 작황이 고르지 못했고, 목화는 더욱 심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0. 1873년(고종 10) 2월 26일(양력 3월 2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a~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5d~325d)

卽接本府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二十三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如爲自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본 개성부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1. 1873년(고종 10) 3월 3일(양력 3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b~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6a~326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羲麟牒報, 則秋甞今始向青, 春甞間或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2. 1873년(고종 10) 3월 8일(양력 4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b~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6a~326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七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亥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3. 1873년(고종 10) 3월 13일(양력 4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b~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6c~326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二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 而仍爲開霽是白乎旃,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甦日漸向青, 春甦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4. 1873년(고종 10) 3월 18일(양력 4월 1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7a~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6d~326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七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5. 1873년(고종 10) 3월 23일(양력 4월 19)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7a~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6d~326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已盡向青, 春麴間或立苗, 早粟,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6. 1873년(고종 10) 4월 3일(양력 4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7b~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7b~327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羲麟牒報, 則秋麴日漸向茂, 春麴·小麥今始向青, 早粟已盡耕播, 早稻間或付種, 黍稷·木花, 方張播種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봄보리·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조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벼는 간혹 무논에 씨앗을 뿌렸고, 기장·목화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7. 1873년(고종 10) 4월 13일(양력 5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8a~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7c~327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二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 而猶未開霽是白乎旃, 農形段, 卽接經歷洪羲麟牒報, 則秋麴方張茁長, 春麴·小麥日漸向茂, 早稻·早粟間或立苗. 黍稷·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2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였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봄보리·밀은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올벼·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68. 1873년(고종 10) 4월 14일(양력 5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8b~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7d~327d)

癸酉四月十四日

本月十四日午時量, 接見齊陵參奉尹沄牒報, 則雨水連日霪下, 今十三日戌時量, 陵上東邊曲牆十九尺頽圯是如爲白有等以, 聞甚驚悚, 臣奉審次, 馳詣本陵,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계유년 4월 14일

이번 달 14일 오시쯤에 제릉 참봉 윤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빗물은 연달아 주룩주룩 내려 이번 13일 술시 쯤에 왕릉 가 동쪽편 곡장(曲牆) 19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려워서 제가 조사하려고 제릉에 급히 나아갔던 연유를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0969. 1873년(고종 10) 4월 23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0a~1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8d~328d)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秋粳間或胚胎，春粳·小麥次第茁長，早稻·早粟日漸向青，黍稷·木花今始立苗。晚稻·晚粟與豆·太，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의 경우,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었고, 봄보리·봄은 차례로 이삭이 자랐고, 올벼·올조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기장·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0. 1873년(고종 10) 5월 4일(양력 5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0a~1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8d~328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間或胚胎, 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茁長. 晚稻·晚粟與豆·太, 方張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의 경우,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봄보리·밀은 간혹 알을 배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싹이 자랐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1. 1873년(고종 10) 5월 7일(양력 6월 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0b~1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b~329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六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2. 1873년(고종 10) 5월 14일(양력 6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1a~1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b~329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已盡入實, 春麴·小麥舉皆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今始初除草. 晚稻·晚粟與豆·太, 次第向青, 洞野畚間或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우택의 경우,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밀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초벌감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있으며, 동네와 들판의 논은 간혹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3. 1873년(고종 10) 5월 24일(양력 6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1a~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c~329d)

癸酉五月二十四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三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八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旻間或刈取, 春旹·小麥已盡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 晚稻·晚粟·豆·太, 今始除草. 洞野畓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계유년 5월 24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김매기를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서 먼저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4. 1873년(고종 10) 5월 25일(양력 6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1b~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d~329d)

本月二十四日卯時至, 得雨二寸八分之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卯時以後, 或灑或霏, 二十五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묘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5. 1873년(고종 10) 6월 1일(양력 6월 2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1b~1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d~329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去五月三十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本月初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6. 1873년(고종 10) 6월 4일(양력 6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1b~1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29d~330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方張刈取, 春麴·小麥間或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今始再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初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밀은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비로소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관의 논에서 일찍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7. 1873년(고종 10) 6월 12일(양력 7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a~1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a~330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一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二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八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8. 1873년(고종 10) 6월 14일(양력 7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a~1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a~330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方張收穫, 春麴·小麥幾盡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今始三除草, 晚稻·晚粟與豆·太, 方張再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茂, 晚移之秧, 間或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수확을 하였고, 봄보리·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무성해지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간혹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79. 1873년(고종 10) 6월 23일(양력 7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a~1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b~330b)

癸酉六月二十三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一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三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四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계유년 6월 23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1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4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0. 1873년(고종 10) 6월 24일(양력 7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b~1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b~330c)

本月二十三日丑時至, 得雨五寸四分之由, 昨已馳啓爲白有在果, 丑時以後, 或灑或霑, 二十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二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春粃·小麥已盡收穫, 早稻·早粟及黍稷·木花三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再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方張茁長, 晚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축시까지 내린 비가 5치 4푼인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축시 이후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2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봄보리·밀은 이미 다 수확하였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1. 1873년(고종 10) 윤6월 5일(양력 7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b~1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c~330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五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午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分, 而仍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今始起花. 晚稻·晚粟與豆·太, 方張三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2. 1873년(고종 10) 윤6월 7일(양력 7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2b~1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c~330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六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 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6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3. 1873년(고종 10) 윤6월 15일(양력 8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3a~1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d~330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舉皆胚胎, 木花與豆·太, 次第起花, 晚稻·晚粟三除草已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다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4. 1873년(고종 10) 윤6월 19일(양력 8월 1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3a~1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d~330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七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九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이었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5. 1873년(고종 10) 윤6월 24일(양력 8월 1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3a~1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0d~330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發穗. 木花與豆·太, 已盡起花, 晚稻·晚粟日漸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이미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6. 1873년(고종 10) 윤6월 27일(양력 8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3a~1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1a~331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六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七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八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7. 1873년(고종 10) 7월 3일(양력 8월 2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4a~1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1b~331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初二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三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3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8. 1873년(고종 10) 7월 5일(양력 8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4a~1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1c~331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方張發穗, 木花與豆·太, 次第結穎, 晚稻·晚粟, 今始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목화와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89. 1873년(고종 10) 7월 15일(양력 9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4a~1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1c~331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四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旂,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已盡發穗. 木花間或摘取, 豆·太, 次第成實, 晚稻·晚粟, 今始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여물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0. 1873년(고종 10) 7월 25일(양력 9월 1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5a~1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2a~33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五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旅,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方張入實. 木花爛漫摘取, 豆·太, 已盡成實, 晚稻·晚粟次第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알이 들고 있다고, 목화는 (솜이) 활짝 터져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이미 다 알이 여물었고, 늦벼·늦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1. 1873년(고종 10) 8월 5일(양력 9월 2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15a~1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2b~33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已盡成熟, 木花幾盡摘取, 豆·太, 方張向熟, 晚稻·晚粟舉皆成實是如爲白有臥乎所, 大抵今年穡事, 自春徂夏, 土脈順解, 雨暘均適, 耕播移插, 俱不失時, 以至今日, 各穀無恙成熟, 毋論峽野, 庶有大登之望是白乎所, 統論各穀優劣, 則豆·太爲最, 禾穀木花次之, 黍稷又次之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이미 다 익었고, 목화는 이미 다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한창 익어가고, 늦벼·늦조는 거의 다 알이 여물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봄부터 여름까지 땅이 부드럽게 녹았고 비와 햇볕이 골고루 적셔주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옮겨 심는 것 모두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니다. 오늘에 이르러 각종 곡식은 () 익었습니다. 골짜기와 들판을 따지지 않고 거의 풍년이 들 가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곡식의 우열을 따지자면 콩·팥이 가장 좋고, 벼곡식·목화가 다음이고 기장은 또 그 다음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2. 1874년(고종 11) 2월 24일(양력 4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29a~2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0d~341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耨日漸向青, 春耨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3. 1874년(고종 11) 3월 5일(양력 4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29a~2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1a~341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秋麴已盡向青，春麴間或立苗，早粟，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4. 1874년(고종 11) 3월 8일(양력 4월 2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0b~3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2a~342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七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戌時至, 測雨器水深, 爲八分, 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7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5. 1874년(고종 11) 3월 15일(양력 4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1b~3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2d~342d)

本府雨澤，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秋粳次第向茂，春粳·小麥今始向青，早粟已盡耕播，早稻間或付種，黍稷·木花，方張播種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무성해졌고, 봄보리·봄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 조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간혹 마른 논에 볍씨를 뿌렸고, 기장·목화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6. 1874년(고종 11) 3월 25일(양력 5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3b~3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4a~344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甦今始胚胎, 春甦·小麥方張向茂, 早稻·早粟間或入苗, 黍稷·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밀은 한창 무성해졌고, 올벼·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7. 1874년(고종 11) 4월 2일(양력 5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34a~34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344a~344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去月三十日辰時量始雨，或灑或霏，午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3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8. 1874년(고종 11) 4월 5일(양력 5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a~3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4b~344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間或發穗, 春麴·小麥已盡向茂, 早稻·早粟次第向青, 黍稷·木花今始立苗, 晚稻·晚粟與豆·太舉皆耕播是如爲白乎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라·봄은 이미 다 무성해졌고, 올벼·올조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기장·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거의 모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999. 1874년(고종 11) 4월 7일(양력 5월 2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a~3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4b~344c)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本月初四日寅時量始雨，或灑或霏。初五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六分，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0. 1874년(고종 11) 4월 15일(양력 5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b~3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5d~345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十三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八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旂, 農形段, 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間或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茁長, 晚稻·晚粟與豆·太, 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는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뻗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이삭이 뻗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싹이 자랐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1. 1874년(고종 11) 4월 24일(양력 6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37a~37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345d~346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二十一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 而姑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2. 1874년(고종 11) 4월 25일(양력 6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7a~3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a~346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間或入實, 春麴·小麥舉皆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向靑. 豆·太, 方張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콩·팥은 한창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3. 1874년(고종 11) 5월 1일(양력 6월 1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7a~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a~346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去月二十九日子時量始雨，或灑或霏。本月初一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八寸，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 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4. 1874년(고종 11) 5월 6일(양력 6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7b~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a~346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初四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五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旂, 農形段, 秋麴已盡向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稻·早粟及豆·太, 今始初除草. 洞野畚先移秧, 間或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3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갔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콩·팥은 지금 초벌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모내기하는 것은 간혹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5. 1874년(고종 11) 5월 14일(양력 6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8a~3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c~346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十一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二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6. 1874년(고종 11) 5월 16일(양력 6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8a~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c~346d)

甲戌五月十六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幾盡收穫, 春麴·小麥方張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今方再除草. 洞野畚先移之秧, 間或向青, 晚移之秧, 次第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갑술년 5월 16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막 두벌김매기를 하였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간혹 푸르러졌고, 늦게 모내기하는 모는 차례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7. 1874년(고종 11) 5월 22일(양력 7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8b~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d~346d)

甲戌五月二十二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十九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一日[午時]至, 測雨器水深[八寸七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갑오년 5월 22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1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7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08. 1874년(고종 11) 5월 22일(양력 7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8b~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6d~347a)

臣於本月二十二日，接見齊陵令李海祚牒報，則雨水連日霏下，本月二十日亥時量，陵上曲牆，自艮方至卯方頽圯，而以周尺量之，則爲七十尺是乎旃，竝與地臺石動退是如爲白有等以，聞甚驚悚，臣奉審次，當日自京離發，馳詣本陵，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이번 달 22일에 제릉 영 이해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빗물이 연이어 날마다 주룩주룩 내렸는데 이번 달 20일 해시쯤에 왕릉의 곡장이 간방(艮方)에서 묘방(卯方) 까지 무너졌습니다. 주척으로 재보니 70자이었고, 지대석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려워 제가 조사하려고 그날로 서울에서 출발해 본 제릉에 이르렀습니다. 연유를 먼저 긴급 보고합니다.

1009. 1874년(고종 11) 5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9a~3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7b~347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本月十九日卯時量始雨，或灑或霏。二十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八寸七分，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0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7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0. 1874년(고종 11) 5월 25일(양력 7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9a~3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7b~347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二十三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三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五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3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1. 1874년(고종 11) 5월 26일(양력 7월 9)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9b~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7b~347c)

本府雨澤,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粃已盡刈取, 春粃·小麥幾盡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今始三除草, 晚稻·晚粟與豆·太再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茂, 晚移之秧, 間或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도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관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2. 1874년(고종 11) 6월 일(양력 7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0a~4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7d~347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去五月三十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本月初一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5월 3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럭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3. 1874년(고종 11)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0a~4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7d~348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木花三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方張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今始初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지금 초벌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1014. 1874년(고종 11) 6월 17일(양력 7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8b~348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今始起花, 晚稻·晚粟與豆·太三除草已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세벌 김매기가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5. 1874년(고종 11) 6월 18일(양력 7월 3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8c~348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七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는데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6. 1874년(고종 11) 6월 26일(양력 8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1b~4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8c~348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五日酉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遣,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舉皆胚胎, 木花·豆·太爛漫起火<花>, 晚稻·晚粟日漸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활짝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7. 1874년(고종 11) 7월 7일(양력 8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2b~4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9b~349c)

甲戌七月初七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初五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七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三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旃,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舉皆胚胎. 木花·豆·太爛漫起花, 晚稻·晚粟日漸茁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갑술년 7월 초7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5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활짝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8. 1874년(고종 11) 7월 17일(양력 8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2b~4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9c~34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發穗, 木花·豆·太, 已盡起花, 晚稻·晚粟, 今方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콩·팥은 이미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막 알을 배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19. 1874년(고종 11) 7월 27일(양력 9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2b~4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9c~34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二十五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六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方張入實, 木花間或摘取. 豆·太, 次第入實, 晚稻·晚粟舉皆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6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알이 들었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다 싹이 났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0. 1874년(고종 11) 8월 1일(양력 9월 1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43a~4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49d~349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去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三十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五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30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1. 1874년(고종 11) 8월 7일(양력 9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43a~43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2책(349d~350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已盡成熟, 豆·太, 方張向熟, 木花幾盡摘取是如爲白臥乎所, 大抵今年穡事, 土脈順解, 雨暘均適, 耕播移插, 俱爲及時, 始有大登之望是白等尼, 乃於五六月之間, 雨水頻仍. 黍稷之沈墊者, 瘁損居多, 木綿之結花者, 腐落過半是乎遣, 禾穀毋論早移晚秧, 近因晝曝夜涼, 頗有登場之望是白乎所, 統論各穀優劣, 則禾穀爲最, 豆·太, 次之, 黍粟稷又次之, 木花段難免歉荒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이미 다 익었고, 콩·팥은 한창 익어갔고, 목화는 거의 다 따서 거두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토양이 순조롭게 풀렸고 비와 햇볕이 모두 적절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옮겨 심는 것들 모두가 때에 맞아 처음에는 크게 풍년들 가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6월 사이에 빗물이 빈번하였고 기장은 깊이 잠겨서 대부분 피해를 입었고, 목화는 꽃을 맺었는데 썩어 떨어진 것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벼곡식은 일찍 옮겨든 늦게 모내기했든 따질 것 없이, 요즈음 낮에는 햇볕이 쬘고 밤에는 서늘하여 자못 풍년이 들 가망이 있습니다. 통틀어 각종 곡식의 우열을 따지자면 벼곡식이 가장 좋고, 콩·팥이 다음이고 조·기장이 또 그 다음입니다. 목화의 경우 흉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2. 1875년(고종 12) 3월 5일(양력 4월 1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7c~357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耨日漸向青, 春耨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 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3. 1875년(고종 12) 3월 9일(양력 4월 1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7d~357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九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酉時至, 測雨器水深, 爲九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 9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4. 1875년(고종 12) 3월 15일(양력 4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6a~5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7d~357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四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巳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已盡向青, 春麴間或立苗, 早粟,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5. 1875년(고종 12) 3월 25일(양력 4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6b~5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8a~358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秋粳日漸向茂，春粳·小麥今始向青，早粟已盡耕播，早稻間或付種，黍稷·木花，方張播種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조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는 간혹 무논에 볍씨를 뿌렸고, 기장·목화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6. 1875년(고종 12) 4월 3일(양력 5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9a~5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9c~35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二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三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3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7. 1875년(고종 12) 4월 5일(양력 5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牒錄 2책(59a~59a) /各司牒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牒錄 2책(359c~359d)

本府雨澤，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羲麟牒報，則秋粳間或胚胎，春粳·小麥今始向茂，早稻·早粟次第立苗，黍稷·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었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올벼·올조는 차례로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8. 1875년(고종 12) 4월 9일(양력 5월 1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9b~5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9d~359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八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九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29. 1875년(고종 12) 4월 15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9b~5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59d~360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羲麟牒報, 則秋粳間或發穗, 春粳·小麥已盡向茂, 早稻·早粟次第向青, 黍稷·木花今始立苗. 晚稻·晚粟與豆·太,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무성해졌고, 올벼·올조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기장·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0. 1875년(고종 12) 4월 19일(양력 5월 2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9b~5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0a~360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八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九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9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1. 1875년(고종 12) 4월 22일(양력 5월 2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59b~6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0a~360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一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二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2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2. 1875년(고종 12) 4월 25일(양력 5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0a~6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0b~360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間或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茁長. 晚稻·晚粟與豆·太, 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싹이 자랐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3. 1875년(고종 12) 5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0a~6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0c~360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羲麟牒報, 則秋麴日漸向熟, 春麴·小麥舉皆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初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向青, 洞野畝間或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익어갔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은 간혹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4. 1875년(고종 12) 5월 10일(양력 6월 1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1a~6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0d~360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初八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九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八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9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5. 1875년(고종 12) 5월 15일(양력 6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1a~6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a~361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十三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方張向熟,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 晚稻·晚粟與豆·太日漸向茂, 洞野畝方張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익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동네와 들판의 논은 한창 옮겨 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6. 1875년(고종 12) 5월 25일(양력 6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1a~6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a~361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秋麴已盡收穫, 春麴·小麥次第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初除草. 洞野畚幾盡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은 거의 다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7. 1875년(고종 12) 6월 2일(양력 7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1b~6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a~361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去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或灑或霏。本月初一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七寸四分，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8. 1875년(고종 12) 6월 5일(양력 7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1b~61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b~361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春粳·小麥已盡收穫, 早稻·早粟及黍稷·木花間或三除草, 晚稻·晚粟與豆·太, 方張再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39. 1875년(고종 12) 6월 15일(양력 7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2a~6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c~361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四日亥時始雨, 或灑或霏, 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分, 而猶未開霽是白乎跡,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木花三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方張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間或茁長, 晚移之秧, 今始初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간혹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0. 1875년(고종 12) 6월 18일(양력 7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2a~6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d~361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七日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1. 1875년(고종 12) 6월 25일(양력 7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2b~6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1d~362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三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五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旃, 農形段,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今始起花, 晚稻·晚粟三除草已畢. 洞野之畚, 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次第向茂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3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5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2. 1875년(고종 12) 6월 28일(양력 7월 3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a~6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b~36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七日申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六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7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3. 1875년(고종 12) 7월 6일(양력 8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a~6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b~362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經歷洪義麟牒報，則早稻·早粟舉皆胚胎，木花與豆·太爛漫起花，晚稻·晚粟日漸茁長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는 거의 모두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활짝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4. 1875년(고종 12) 7월 16일(양력 8월 1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a~6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b~362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今始發穗, 木花·豆·太間或結穎, 晚稻·晚粟, 方張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와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한창 알을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5. 1875년(고종 12) 7월 22일(양력 8월 2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a~6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c~362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本月十八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日亥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尺四寸九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0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4치 9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6. 1875년(고종 12) 7월 27일(양력 8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b~6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c~362d)

本月二十日亥時至, 得雨一尺四寸九分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亥時以後, 一直灑霏. 二十四日戌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尺九寸,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舉皆發穗. 木花·豆·太爛漫結顆, 晚稻·晚粟, 今始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해시까지 내린 비가 1자 4치 9푼이었던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시 이후 줄곧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면서 24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9치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활짝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7. 1875년(고종 12) 8월 6일(양력 9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3b~6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2d~362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洪義麟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方張入實, 木花已盡結穎, 豆·太, 次第成實, 晚稻·晚粟舉皆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의 경우,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홍희린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알이 들었고, 목화는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콩·팥은 차례로 알이 여물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모두 이삭이 났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8. 1875년(고종 12) 8월 16일(양력 9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5a~6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3c~363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鴻植牒呈, 則早稻·早粟及黍稷·豆·太, 已盡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 농사 상황의 경우,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홍식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콩·팥은 이미 다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49. 1875년(고종 12) 8월 26일(양력 9월 2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65b~6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2책(363d~363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鴻植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已盡成熟, 木花幾盡摘取, 豆·太舉皆向熟, 晚稻·晚粟次第成實是如爲白臥乎所, 大抵今年穡事, 自春徂夏, 土脈順解, 雨暘均適, 耕播移插, 俱不失時, 以至今日, 各穀無恙成熟是白如乎, 嗣後如無別異之災, 則毋論峽野, 庶有大登之望, 而統論各穀優劣, 則禾穀爲最, 豆·太·木花次之, 黍稷又次之是白如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홍식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이미 다 익었고, 목화는 거의 다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거의 모두 익어갔고, 늦벼·늦조는 차례로 알이 여물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봄부터 여름까지 토양이 순조롭게 풀렸고 비와 햇볕이 모두 적절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옮겨 심는 것들 모두가 때를 놓치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러 각종 곡식은 병없이 익었습니다. 이후 별달리 재해가 없다면 골짜기와 들판을 따지지 않고 아마도 크게 풍년들 가망이 있습니다. 통틀어 각종 곡식의 우열을 따지자면 벼곡식이 가장 좋고 콩·팥·목화가 다음이고 기장은 또 그 다음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0. 1884년(고종 21) 3월 14일(양력 4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2b~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69a~369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耨日漸向青, 春耨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1. 1884년(고종 21) 3월 17일(양력 4월 1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b~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69b~36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十五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六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分, 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6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2. 1884년(고종 21) 3월 24일(양력 4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b~3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69c~369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已盡向青, 春麴間或立苗, 早粟,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3. 1884년(고종 21) 4월 1일(양력 4월 2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b~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a~370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去三月二十九日辰時量始雨，或灑或霏，本月初一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九分，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4. 1884년(고종 21) 4월 5일(양력 4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5a~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b~370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方張向茂, 春麴·小麥今始向青, 早粟次第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무성해졌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 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5. 1884년(고종 21) 4월 10일(양력 5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5a~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c~370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初七日未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6. 1884년(고종 21) 4월 15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5b~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c~370c)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已盡向茂, 小麥今始向茂, 早稻·早粟間或立苗, 黍稷·木花次第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무성해졌고, 밀은 지금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올벼·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7. 1884년(고종 21) 4월 25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5b~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d~370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粳已盡胚胎, 春粳·小麥次第向茂, 早稻·早粟, 方張向青, 黍稷·木花間或立苗, 晚稻·晚粟與豆·太,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알을 배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무성해졌고, 올벼·올조는 한창 푸르러졌고, 기장·목화는 간혹 싹이 돋았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8. 1884년(고종 21) 4월 26일(양력 5월 20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5b~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0d~370d)

本府農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二十三日辰時始雨, 或灑或霏, 二十四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4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59. 1884년(고종 21) 5월 5일(양력 5월 29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4책(6b~6b)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3책(371a~371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初三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八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秋麴方張發穗, 春麴·小麥間或胚胎,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次第向青, 晚稻·晚粟與豆·太, 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초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알을 배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0. 1884년(고종 21) 5월 15일(양력 6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6b~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1b~371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次第入實, 春麴·小麥方張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間或初除草, 晚稻·晚粟與豆·太, 今始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田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1. 1884년(고종 21) 5월 25일(양력 6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4책(6b~7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3책(371b~371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二十三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已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秋麴已盡向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初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日漸向青, 洞野畚有水根處, 方張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갔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한창 옮겨 심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2. 1884년(고종 21) 5월 29일(양력 6월 2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a~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1c~371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3. 1884년(고종 21) 윤5월 6일(양력 6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a~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1c~371d)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已盡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再除草, 晚稻·晚粟與豆·太, 幾盡向青, 洞野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거의 다 푸르러졌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4. 1884년(고종 21) 윤5월 16일(양력 7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a~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1d~371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十三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秋粃已盡收穫, 春粃·小麥幾盡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 方張三除草, 晚稻·晚粟與豆·太, 今始再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茂, 晚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 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5. 1884년(고종 21) 윤5월 26일(양력 7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b~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1d~372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在果，卽接經歷孫德漢牒報，則春粳·小麥已盡收穫，早稻·早粟及黍稷·木花次第三除草，晚稻·晚粟與豆·太，幾盡再除草，洞野畝先移之秧，次第向青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6. 1884년(고종 21) 6월 6일(양력 7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b~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2a~372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初三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姑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今始起花, 晚稻·晚粟與豆·太, 方張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舉皆向茂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 3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거의 모두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7. 1884년(고종 21) 6월 16일(양력 8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7b~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2a~37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初十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三日申時量至, 測雨器水深, 爲一尺三寸, 而仍爲開霽爲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方張胚胎, 木花與豆·太, 次第起花, 晚稻·晚粟, 今始茁長, 洞野畚先移之秧, 今始胚胎, 晚移之秧, 已盡向茂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3일 신시쯤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3치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조는 지금 싹이 자라기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이미 다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8. 1884년(고종 21) 6월 27일(양력 8월 17일)

開城府留營狀啓臚錄 4책(8a~8a) /各司臚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臚錄 3책(372b~372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發穗, 木花與豆·太, 次第結穎, 晚稻·晚粟, 方張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한창 알을 배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69. 1884년(고종 21) 7월 7일(양력 8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8b~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2c~372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次第發穗, 木花與豆·太, 方張結穎, 晚稻·晚粟, 今始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0. 1884년(고종 21) 7월 17일(양력 9월 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8b~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2d~372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十二日卯時量始雨, 或灑或霏, 十五日子時至, 測雨器水深, 爲八寸, 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舉皆發穗, 木花與豆·太, 已盡結顆, 晚稻·晚粟爛漫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2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자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활짝 이삭이 났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1. 1884년(고종 21) 7월 27일(양력 9월 1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9a~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2d~372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方張向熟, 木花爛漫摘取, 豆·太, 已盡成實, 晚稻·晚粟次第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익어갔고, 목화는 (솜이) 활짝 터져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늦벼·늦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2. 1884년(고종 21) 8월 8일(양력 9월 26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9a~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73a~373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已盡成熟, 木花幾盡摘取, 豆·太, 方張向熟, 晚稻·晚粟, 舉皆成實是如爲白有臥乎所. 大抵今年穡事, 土脈順解, 雨暘均適, 耕播移插, 俱爲及時是白加尼. 乃至七月, 雨水頻仍, 陰風連吹, 禾穀則間多災傷, 黍稷之沈墊者, 瘁損居多, 木綿之將顛者, 腐落太半是白乎所, 統論各穀優劣, 則豆·太爲最, 禾穀黍稷次之, 木花未免歉荒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 이미 다 익었고 목화는 거의 다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한창 익어갔고, 늦벼·늦조는 거의 모두 알이 여물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토양이 순조롭게 풀렸고 비와 햇볕이 모두 적절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옮겨 심는 것들 모두 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르러 빗물이 빈번하였고 음산한 바람이 연이어 불어 벼곡식은 그사이 재해입은 것이 많았고 기장은 잠겨 손상입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목화 중 꼬투리가 달렸던 것은 대부분이 썩어 떨어졌습니다. 통틀어 각종 곡식의 우열을 따지자면 콩·팥이 가장 좋고 벼곡식·기장이 다음이고 목화는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3. 1885년(고종 22) 2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29b~2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5c~385d)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本月二十二日丑時量, 始雨灑下, 卯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秋麴日漸向青, 春麴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뿌리더니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 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4. 1885년(고종 22) 3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0b~3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6a~386a)

乙酉三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粃已盡向青, 春粃間或立苗, 早粟, 今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3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 보리는 이미 다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돋았고, 올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5. 1885년(고종 22) 3월 일(양력 4월 2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2a~3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7c~387c)

乙酉三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日漸向茂, 春麴今始向青, 早稻·早粟, 間或付種, 黍稷·木花今方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3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벼·올조는 간혹 마른 논에 벼씨를 뿌렸고 기장·목화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6. 1885년(고종 22) 3월 일(양력 5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2a~3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7d~387d)

乙酉三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霑, 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 而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3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0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7. 1885년(고종 22) 3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2a~32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7d~387d)

乙酉三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麴今始胚胎, 春麴·小麥方張向茂, 早稻·早粟間或立苗, 黍稷·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3월 일

본 개성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무성하게 자랐고, 올벼·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기장·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8. 1885년(고종 22) 4월 일(양력 5월 1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4a~34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8b~388b)

乙酉四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四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初五日子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孫德漢牒報, 則秋粳方張胚胎, 春粳·小麥, 次第向茂, 早稻·早粟及黍稷·木花, 舉皆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4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5일 자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손덕한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무성해졌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거의 모두 입묘(立苗)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79. 1885년(고종 22) 4월 일(양력 5월 23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4b~3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8c~388c)

乙酉四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次第胚胎, 早稻·早粟及黍稷·木花, 今始向青, 豆·太, 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4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모두 이삭이 났으며,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을 배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0. 1885년(고종 22) 4월 일(양력 6월 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4b~34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8c~388d)

乙酉四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十七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4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1. 1885년(고종 22) 4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4b~35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8d~388d)

乙酉四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秋麴方張入實, 春麴·小麥舉皆發穗, 早稻·早粟及黍稷·木花, 今始初除草, 晚稻·晚粟, 今始向青, 豆·太, 次第立苗, 洞野畝間或移秧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4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 하였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이 들었고, 봄보라·봄밀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늦조는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콩·팥은 차례로 싹이 돋았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는 간혹 모내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2.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6월 1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6a~3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9b~389c)

乙酉五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秋甦日漸向熟, 春甦·小麥, 次第入實, 早稻·早粟及黍稷·木花, 初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已盡向青, 洞野畚先移之秧, 間或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익어갔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이미 다 푸르러졌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3.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6월 2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6a~36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9c~389c)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見今夏至已過, 一直亢旱, 言念民情, 誠爲渴悶. 此時圭璧之薦, 不容少緩乙仍于, 社稷壇祈雨祭, 不卜日今月十六日, 爲先設行之意, 知委於本府經歷爲白遣,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줄곧 가뭄이 들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이때 기우제의 추천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사직단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이번 달 16일에 먼저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개성부 경력에게 알렸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4.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6월 2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6a~36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9c~389d)

乙酉五月 日

本府社稷壇祈雨祭設行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十三日午時量始雨, 或灑或霏, 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亢旱渴望之餘, 以此分雨, 無以解渴是白乎等以, 再次祈雨祭, 今月十八日, 連爲設行於松岳山計料是如爲白乎旡. 秋麴方張收穫, 春麴·小麥日漸向熟, 早稻·早粟及黍稷·木花再除草, 晚稻·晚粟與豆·太初除草, 洞野畚先移之秧, 舉皆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개성부의 사직단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가뭄으로 애타게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우제는 이번 달 18일에 연이어 송악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을보리는 한창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익어갔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거의 모두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5.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7a~3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a~390a)

乙酉五月 日

本府朴淵祈雨祭設行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陰雲四集, 雨意無日不緊, 而尙靳一霏, 目下民情, 去益焦悶. 五次祈雨祭, 本月二十四日大井, 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박연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음산한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비올 조짐이 날마다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아직 한줄기도 쏟아지지 않아 눈앞의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초조하여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5차 기우제를 이번 달 24일 대정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6.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7a~3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a~390b)

乙酉五月 日

本府大井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淒風吹散, 雨意愈邈, 目下民情, 日益悶迫, 故六次祈雨<祭>, 自本月二十六日, 依已例連三日歸法巖, 設行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대정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찬바람이 불어오고 비올 조짐은 더욱 아득하여 눈앞의 백성들의 심정은 날로 더욱 답답해 했습니다. 때문에 제6차 기우제를 이번 달 26일에 이전 사례대로 연이어 3일 간 귀법암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7.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7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7a~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b~390b)

乙酉五月 日

本府歸法巖祈雨祭, 連三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二十四日子時量始雨, 或灑或霏, 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旃. 農形段, 秋麴已盡收穫, 春麴·小麥, 方張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 再除草已畢, 晚稻·晚粟與豆·太, 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귀법암 기우제를 연이어 3일간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8.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8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7b~37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b~390c)

乙酉五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二十五日午時量驟雨, 或灑或霏, 當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본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 오시쯤에 소낙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89. 1885년(고종 22) 5월 일

開城府留營狀啓牒錄 4책(36b~36b) /各司牒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牒錄 3책(389d~389d)

乙酉五月 日

本府松岳山祈雨祭設行之由及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雨意向此漠然, 民情去益渴悶乙仍于, 三次祈雨祭, 本月二十五日, 五冠山, 連爲設行計料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송악산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비올 조짐은 오히려 이처럼 막연하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애타고 걱정했습니다. 3차 기우제를 이번 달 25일 오관산에서 연이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0.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6b~37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89d~390a)

乙酉五月 日

本府五冠山祈雨祭設行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雨意尙邈, 初庚將近, 言念民情, 去益渴悶. 四次祈雨祭, 本月二十二日, 朴淵, 虔誠設行計料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오관산 기우제를 지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비올 조짐은 오히려 막연하고 초복이 가까왔으니 백성들의 정황을 생각하면 갈수록 애타고 걱정스럽습니다. 4차 기우제를 이번 달 22일 박연에서 정성을 다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1. 1885년(고종 22) 5월 일(양력 7월 12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7b~3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c~390c)

乙酉五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二十八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九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猶未開霽是如爲白乎所, 亢旱渴望之餘, 以若寸雨, 殊未周洽乙仍于, 社稷壇七次祈雨祭, 不卜日來月初三日, 更爲設行次, 臣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5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 다.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약 1치의 비가 내렸으나 매우 두루 흡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직단 7차 기우제는 날을 가리지 않고 다음 달 초3일 다시 시행하려고 저는 당일 감영으 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2. 1885년(고종 22) 6월 일(양력 7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8a~38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c~390d)

乙酉六月 日

本府社稷壇七次祈雨祭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三日寅時量始雨, 或灑或霏, 未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白乎所. 亢旱渴望之餘, 得此甘霖, 誠爲萬幸是白乎所. 見今陰雲未解, 雨意尙濃, 八次祈雨祭, 姑爲停止, 伊後所得,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사직단 7차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이처럼 단비가 쏟아졌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지금 음산한 구름이 아직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여전히 짙습니다. 8차 기우제는 일단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내린 것은 잇따라 아뵐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3.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8a~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d~390d)

乙酉六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四日亥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尺一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春粳·小麥, 已盡刈取, 早稻·早粟及黍稷·木花, 今始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方今移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4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1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방금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4.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8b~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0d~391a)

乙酉六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初六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霖, 初八日亥時至, 測雨器水深, 爲九寸,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 6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5.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8b~38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a~391a)

乙酉六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四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六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木花三除草已畢, 洞野畚先移之秧, 日漸茁長, 晚移之秧, 間或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6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6.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8b~39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a~391a)

乙酉六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十六日酉時量始雨, 或灑或霖, 十八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 仍爲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6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7.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9b~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c~391c)

乙酉六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間或胚胎, 木花, 方張起花, 晚稻·晚粟與豆·太三除草, 洞野畚先移之秧, 次第着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간혹 알을 배었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와 콩·팥은 세벌 김매기를 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1098. 1885년(고종 22) 6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39b~39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c~391c)

乙酉六月 日

本府農形, 昨已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 或灑或霏, 當日申時量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6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099. 1885년(고종 22) 7월 일(양력 9월 1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1a~41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2b~392c)

乙酉七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十九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二十日丑時至, 測雨器水深, 爲五寸八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9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0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0. 1885년(고종 22) 7월 일(양력 9월 4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2a~4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2d~393a)

乙酉七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二十三日丑時量始雨灑下, 二十五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 而猶未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舉皆發穗. 木花豆·太, 已盡結顆, 晚稻·晚粟爛漫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뿌리면서 2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고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목화와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활짝 이삭이 났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1. 1885년(고종 22) 7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0a~4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d~391d)

乙酉七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舉皆胚胎, 木花豆·太爛漫起花, 晚稻·晚粟, 今始茁長, 洞野畚先移之秧, 日漸向青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알을 배었고, 목화와 콩·팥은 활짝 꽃이 피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고 동네와 들판의 논에 먼저 옮겨 심은 모는 날로 점점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2. 1885년(고종 22) 7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0a~40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d~391d)

乙酉七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初六日辰時量始雨, 初九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三分, 而仍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3. 1885년(고종 22) 7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0a~4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1d~392a)

乙酉七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早稻·早粟及黍稷, 舉皆發穗, 木花豆·太, 方張結穎, 晚稻·晚粟, 今始胚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 및 기장은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목화·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었고, 늦벼·늦조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4. 1885년(고종 22) 7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0b~40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2a~392a)

乙酉七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十五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十八日未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寸七分, 而倂爲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묘년 7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8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7푼이었고 이내 개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5. 1885년(고종 22) 8월 일(양력 9월 9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2a~42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3a~393a)

乙酉八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二十八日午時量始雨灑下, 三十日巳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 而猶未開霽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8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8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0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였는데 여전히 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6. 1885년(고종 22) 8월 일(양력 9월 15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3a~43a)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3b~393c)

乙酉八月 日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本月初四日辰時量始雨, 或灑或霏, 初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乎旆. 農形段, 早稻·早粟及黍稷, 方張向熟, 木花爛漫摘取, 豆·太, 已盡成實, 晚稻·晚粟次第入實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8월 일

본 개성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조 및 기장은 한창 익어갔고, 목화는 (솜이) 활짝 터져 따서 거두었고, 콩·팥은 이미 다 알이 영글었고, 늦벼·늦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1107. 1885년(고종 22) 8월 일

開城府留營狀啓謄錄 4책(45b~45b) /各司謄錄 4책, 開城府留營狀啓謄錄 3책(394d~395a)

乙酉八月 日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經歷金命來牒報, 則早稻·早粟幾盡成熟, 黍稷, 方張收穫, 豆·太, 次第向熟, 木花爛漫摘取, 晚稻·晚粟舉皆入實是如爲白有臥乎所. 大抵今年穡事, 自春徂夏, 亢旱一直孔酷, 移秧不能及時, 宜粟宜稷之田, 幾於焦枯矣. 乃至六月, 始得甘露, 跨月暴霖, 野多潰缺, 浦落之畝, 峽有淘沙頽傷之田, 而八月以後, 晝曝夜涼, 禾穀段無論早移晚秧, 庶有登場之望是白乎所. 統論各穀優劣, 則禾穀爲最, 豆·太, 次之, 黍稷粟及木花又次之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유년 8월 일

본 개성부의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경력 김명래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올조는 거의 다 익었고, 기장은 한창 수확했고, 콩·팥은 차례로 익어갔고, 목화는 (솜이) 활짝 터져 다 따서 거두었고, 늦벼·늦조는 거의 모두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줄곧 매우 심해서 모내기는 때를 맞출 수 없었고 조와 기장을 경작하기에 적절한 밭도 거의 타듯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단비가 쏟아져 두 달에 걸쳐 사납게 주룩주룩 내려 들판은 독이 터지고 떠내려간 논이 많았고, 골짜기는 모래로 덮이거나 무너진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로 낮에는 햇볕이 쬘고 밤에는 서늘해져 벼 곡식의 경우, 일찍 옮겨 심은 것이든 늦게 옮겨 심은 것인지를 막론하고 거의 타작할 가망이 있었습니다. 통틀어 각종 곡식의 우열을 따지자면 벼곡식이 가장 좋고 콩·팥이 다음이고 조·기장 및 목화가 또 다음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69-01
ISBN	979-11-6988-368-9(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